

금수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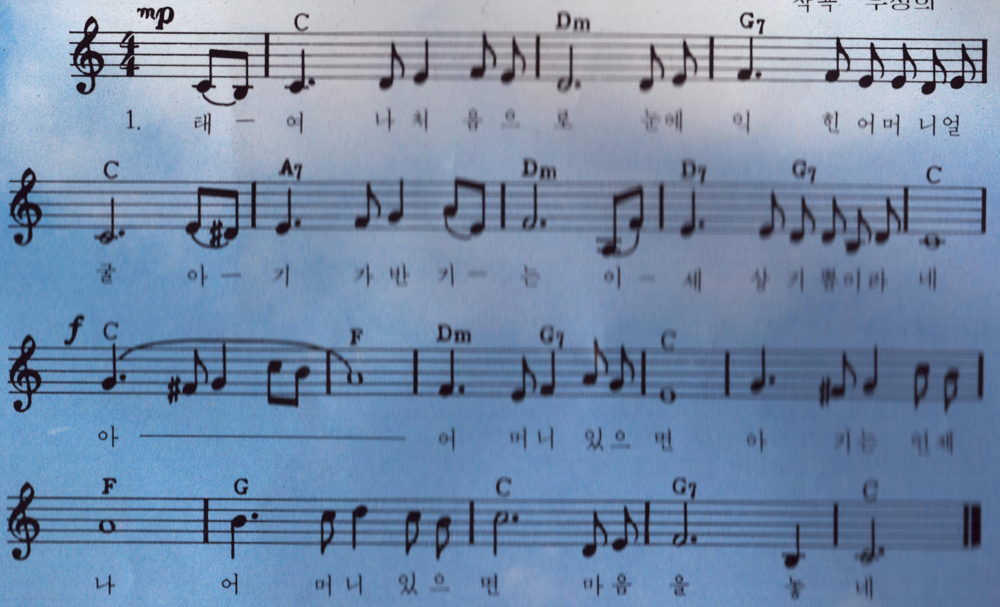
2

주체87(1998)

당은 어머니 모습

빠르지 않게, 감정 풍부히

작사 배헌평
작곡 우정희



2. 우러러 볼수록 당은 어머니의 그 모습
아기가 엄마 찾듯이 내 한생 당을 따르네
아 그곁에 있으면 이 몸은 언제나
그곁에 있으면 행복에 겹네

3. 사랑속에 자라며 정이 들은 당의 그 품은
내 운명 맡겨둔 이 세상 전부이라네
아 어머니당이여 한생을 살면서
이 몸은 언제나 그대만 아네





백두산천지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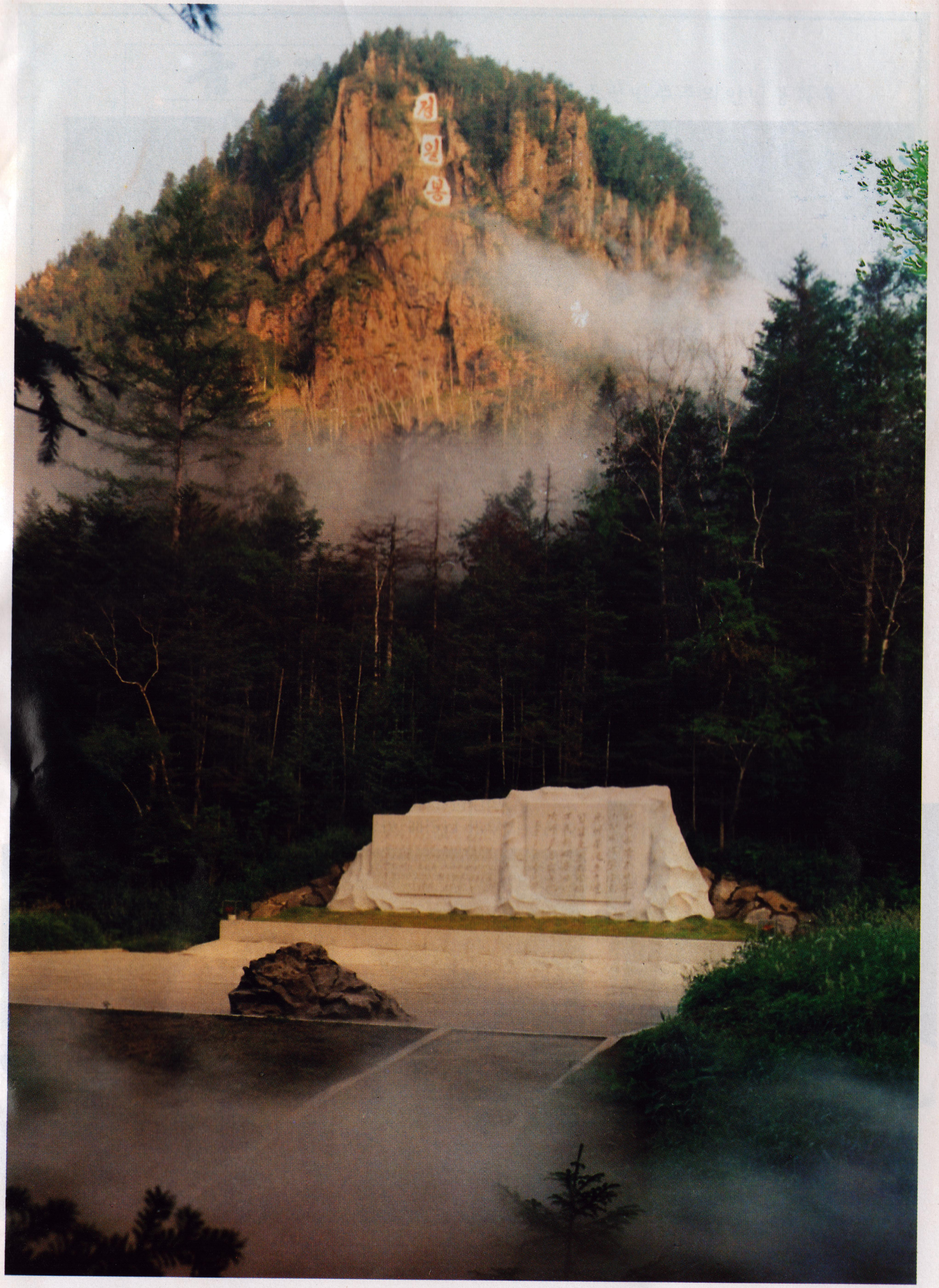
아아한 백두련봉에 채운이 비끼더니 어느덧 봄의 서기가 서려오른다. 천리수해의 설레임소리, 소백수의 얼음장밑을 흐르는 물소리에 삼라만상이 태동하는 소리가 어울려 축원의 교향악마냥 울리는 2월의 봄명절이 왔다.

이 나라 북변의 림산마을로부터 제주도의 섬마을, 만리이역의 각 대륙과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서 온 겨레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류다른 민족적긍지로 하여 가슴 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어한다.

하여 2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더없는 민족적긍지를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만수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외국인들







해외에서 진행된 도서전람회장에서

사진 김 진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수놓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여 노래를 부르고있는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인학생들



금수강산

월 간

주체87(1998)년 2호(루계 제102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표지 : **김정일**화
사진 : 김 광 진

뒤표지 : 겨울의 밤설경(평양시 일부)
사진 : 리 철 준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03192

백두산의 아들께 영광을

영광찬란한 력사의 56년이 흐르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가 림해설원우에 류달리 붉게 타는 노을을 펼치고 정일봉의 기상이 구만리장천에 각광을 받으며 숭엄성을 드러낸다. 소백수의 정갈한 맑은 물이 얼어붙은 대지에 환희를 부르며 소연히 흘러내린다.

경사로운 2월 16일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밀영에서 탄생하신 쉰여섯돐이 되는 뜻깊은 이 아침 우리 인민은 다함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특히 올해 2월의 명절은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환희를 안고 맞는것으로 하여 인민의 격정은 더더욱 드높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고 조국광복을 이룩한 격전터인 동시에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성지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환호성을 터뜨리며 《백두광명성》으로 맞이하여 만방에 자랑한 **김정일**장군님, 그이께서는 만고의 빨찌산의 명장 **김일성**장군님과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의 위대한 사랑과 애무를 받으며 성장하시였다.

일제의 백만대적을 쓸어눕히는 총포성속에서 소박한 유격대식찬을 드시며 동빙설지에서 유년기를 보내신 장군님, 그이께서는 그때에 벌써 룡마바위에 오르시여 무적의 대검을 번뜩이시며 천산만악을 휘여잡고 무비의 기질을 키우시였다. 전화의 날에는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 수령님의 신묘한 주체전법과 전략전술을 터득하신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과시 어리신 시절부터 세계위인전이 아직 기록한적 없는 수많은 전설을 남기시며 백두산의 정기를 안고 무한대한 우주와 견줄 담력의 소유자이심을 시대앞에 보여준 출중한분이시였다.

하기에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학창시절에 룡남산에 오르시여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누리에 조선을 떨쳐가실 엄숙한 선언을 하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장장 30여성상 풍파사나운 시대의 험난한 항로에서 혁명의 방향타를 쥐시고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 위해 불면불휴의 공헌을 하시였다.

참으로 장군님은 조선의 미래이시고 조선혁명의 운명이시다. 그이는 영원무궁토록 번영할 우리 조국이시고 승승장구할 우리 식 사회주의기치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김정일동무를 혁명의 수위로 받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갈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야 하며 오중흡련대가 사령부를 보위한것처럼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인 당중앙위원회와 김정일동무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장군님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군력건설에 특출한 업적을 아로새기시였다.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억세게 뿌리내린 불패의 당으로, 시련도 많고 난관도 있었지만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세계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진두에 서있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신분은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제국주의의 련합세력과 온갖 반동들의 악랄한 군사적 위협과 압력, 경제적봉쇄와 사상문화적침투가 날로 더욱 강화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녕을 끄떡없이 지켜주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도록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자주의 강국,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힘있는 나라로 떨쳐주신분도 다름아닌 장군님이시다.

어찌 그뿐이랴.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총대로 고수하시기 위하여 혁명무력강화에 불철주야로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장군님의 예지와 담력, 철의 의지와 신념을 닮아 오늘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필승의 강군으로 준비되여있다.

우리 나라를 아무도 쉽게 건드릴수도 없고 또 령토가 넓지 못하고 인구가 많지 못하다고 감히 숫볼수도 없는 강성대국으로,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던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을 긍지로운 태양민족으로 자랑을 떨치도록 이끌어주신 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출중한 선견지명을 지니시고 혁명의 사령탑우에 거연히 서시여 조선을 빛내이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인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난파선마냥 기울거리는 시대의 항로를 주체의

21세기로 달리는 《인민행렬차》

겨레들이여! 최근 조국땅에서 흘러가는 창조와 건설의 나날들을 잠시 더듬어보자.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시였던 《인민행렬차》가 20세기를 이어 21세기에로 줄기차게 내닫고있음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될것이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는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을 통해 철학도 문학도 정치경제학도 다 알고있으며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전지전능의 존재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혁명투쟁을 벌리시는 과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그리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일군들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날까지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은 인민들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혁명의 어려운 고비도 인민들과 함께 헤쳐오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였으며 스승이

등대로 밝혀주시고 적들의 악랄한 훼방을 물거품처럼 날리시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보검을 안겨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다.

바야흐로 세계는 21세기에 진입하고있다. 인류는 이 시각 **김정일**장군님을 자주강국의 태양, 세계사회주의의 유일한 구원자, 걸출한 령수로 격찬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어느 한 통일문제연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의 지구촌에서 이북은 〈자주의 강국〉으로 높이 솟아있다. 이러한 이북을 이끌고계시는 **김정일**령도자를 세계는 자주정치의 거인으로,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르고있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시종여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기 민중의 힘에 의거하는 자주정치,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철학이요, 민족존립의 대원칙이요, 민족생존의 방식이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조선은 재난과 불행, 고통이 아무리 큰것이라 하여도 자기들의 삶과 투쟁의 기치—사회주의 붉은기를 내리우지 않을것이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래일은 반드시 강성한 력량으로 세계에 군림하리라는 락관을 가지고계시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령도가 강하게 작용하고있고 이 나라 모든 공산주의자들, 인민들과 군대들이 그이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있기때문이다.

때문에 미국은 가장 강한 적, 가장 헐치 않은 그런 정치실체와 직접 대치하고있다는 그런 각도에서 북조선과 접촉하고 대화하며 거래를 하여야 할것이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장군님은 바로 우리 민족이 절대적으로 숭망하고 세계 진보적인류가 무한히 존경하며 우러르는 그런분이시다.

결심이 단호하고 목표가 정확하며 타격이 강하신 문무를 겸비하신 위대한 령도자,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결심을 품으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통일위업실현에로 부르셨거늘 금수강산 삼천리에 분단선이 지워질 날은 멀지 않았다.

참으로 56년의 위대한 력사는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수령님그대로이신 장군님께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장군님의 탄생은 곧 조선의 영광이고 행복이며 세상만민의 대경사였음을 다시금 절감한다. 우리 인민과 함께 모든 해외동포들은 장군님을 모시여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령장복에 목메이며 그이를 충효일심으로 옹위하며 천만년 따를 결의에 불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여, 백두산의 위상을 안으시고 륭성번영하는 조선을 무궁토록 이끄시며 민족의 축원과 만민의 찬가속에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로 재 룡

시였다.

어느해 겨울날 한 산간협동농장을 찾으시고 농사일을 의논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점심시간이 퍽 지나서 승용차에 오르시게 되였다. 그때 그곳 농장의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때식을 넘기고 가시면 안된다고, 식사를 하고 떠나시라고 절절하게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일군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간이 늦어서 이제는 가야겠소, 할수 없지, 늘 그렇게 사는걸, 섭섭해마오, 이제 또 오겠소라고 하시며 기어이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였다.

오늘도 생각하면 가슴이 젖어들고 눈굽이 뜨거워지는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력사에 남기신 그런 가슴뜨거운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처럼 그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끊임없이 베푸신다.

그이께서는 자신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할뿐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 미래 사회에까지 함께 데리고가시기 위해 폭넓으신 도량으로 인민들을 한품에 따뜻이 안아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도 어버이수령님식으로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것으로부터 지도하시고 실무지도사업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시였던 그 로정을 따라 밟으시며 진행하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수천년 력사의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릉을 완벽하게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유훈교시를 심장깊이 새기시고 실무지도사업을 유훈교시를 관철하는것으로부터 진행하시였다.

주체83(1994)년 10월 29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개건된 단군릉을 찾으시고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다음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민족의 시조왕인 단군을 찾아주시여 우리는 조국의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긍지높이 전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릉 보존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1단계공사가 끝난 청류다리를 돌아보시고 그 며칠후인 11월 9일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시였던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시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안고 맞는 첫해인 주체84(1995)년의 설날 아침에는 조선인민군 제214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으며 그해 2월 5일에는 조국의 관문을 지키는 녀성해안포중대를 시찰하시고 뜨거운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방법도 수령님식 령도방법, 풍모도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위인적풍모를 그대로 지니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시였던 그 현지지도의 로정을 하나하나 밟으시며 우리 혁명의 기관차를 줄기차게 몰아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시고 몰아가시는 《인민행렬차》,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혁명렬차이다.

그 혁명의 렬차가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인민에게는 승리와 영광만이 차례지게 되고 조국땅에는 행복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 아니 온 겨레가 혁명실천을 통하여 체득한 생활의 철리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인민행렬차》는 20세기를 이어 21세기에로 줄기차게 달리며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리상사회, 주체의 사회주의락원을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갑

아침체조와 달리기

겨울의 아침공기는 어느 계절보다 시원하고 맑다.

이것은 잡균들과 먼지오물이 적고 대기가 맑고 깨끗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겨울의 아침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체조와 달리기를 하면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준다.

겨울철아침달리기를 정상화하면 호흡기계통과 심장혈관계통, 뇌수 등에 좋은 작용을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체조와 달리기를 꾸준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호흡기계통이 튼튼하게 단련되여 감기를 비롯한 병의 침습을 미리 막을수 있다. 또한 몸안의 피흐름이 왕성해져 몸이 거뜬해지고 상쾌해지며 뇌수의 기능과 역할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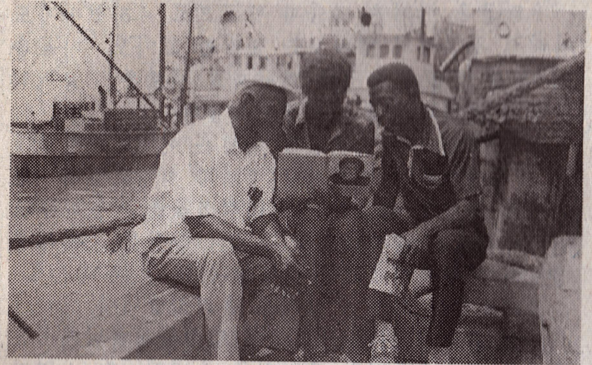
겨울철아침 체조와 달리기는 나이와 성격, 취미, 체질적특성에 맞게 적당히 하여야 한다.

위인의 풍모에 매혹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심정을 시와 노래에 담아 터치고있다. 그러한 사람들가운데는 로씨야의 울라지미르 크리울린과 겐나지 샤린도 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5돐에 즈음하여 노래 《인민의 위대한 아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흠모하는 외국인들

준엄한 시절에 탄생하신 그이
위대한 수령님 높은 뜻 이어
주체의 예지로 앞길을 밝혀
인민을 령도하시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낮과 밤을 지새우시는분
그이는 인민의 참된 아들
만민이 받드는 **김정일**원수

후렴 : **김정일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행복
김정일 김정일 그이는 승리의 기치

크리울린은 이름난 시인이 아니다.

로씨야의 《평화와 오늘》위원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크리울린은 근 30년간 군대에 복무하면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데 청춘을 바친 군인출신의 사회활동가이다. 그는 선배들이 피와 땀, 생명까지 바쳐 찾아주고 빛내여온 사회주의조국 수호에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반사회주의광풍이 사정없이 몰아치는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하는 조선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그이에 대한 자기의 존경과 흠모, 칭송의 마음을 노래하고싶은 충동이 그의 온 심장을 사로잡았다.

이미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3돐을 맞으며 그이께 드리는 헌시를 창작하였으며 장군님의 로작연구모임들에 참가하여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4돐이 되는 때에는 그이께 자기 집의 가보로 보관하고있던 귀중한 력사책을 선물로 올리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그 모든 소행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매혹된 심정의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소리높이 노래하는 가사를 쓰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의 태양이시며 제국주의자들을 한손에 쥐고 쥐락펴락하시는 강철의 령장이시다. 정녕 그이는 세계인민들의 행복이고 승리의 기치이시였다.

이처럼 노래 《인민의 위대한 아들》은 로씨야의 평범한 한 사회정치활동가의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이 낳은것이였다.

크리울린의 가사에 접한 작곡가 겐나지 샤린은 흥분을 억제할수 없었다.

샤린은 일찌기 음악학교와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한 재능있는 작곡가이다. 사회주의사상을 열렬히 신봉한 그는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쏘베트조국을 노래하는 수많은 곡들을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칭송한 가사를 받아안은 그는 생각이 깊었다.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고수하고있는 조선인민,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세계제국주의와 국제반동들의 련합세력과 맞서 승리를 거듭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조금이나마 새 힘을 보태드리고싶고 기쁨을 드리고싶은것이 샤린의 심정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된 명곡들을 비롯한 조선노래들을 감상하고 연구하면서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아름답고 고상한 선률을 고르고 골랐다. 그것을 놓고 매일 저녁마다 음악을 전공하는 안해와 아들, 딸과 함께 심의를 거듭하여 완성시켰다.

송가의 선률들에는 이렇게 그와 온 가족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었다.

크리울린과 샤린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인민의 위대한 아들〉을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위업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온 세상에 자랑할것입니다.》

본사기자 김 경 희

수기

2월의 명절을 맞을 때마다

내 나이 이제는 여든고개를 넘어섰습니다.

나이를 먹고보니 지난날 백두밀림에서 항일의 총성을 거세차게 울리며 산전을 주름잡아 달리던 빨찌산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실안개 피여나는 소백수골안, 아아한 련봉을 사이에 두고 울창한 원시림속에 조선의 새 터전을 마련한 최고사령부밀영,

바로 거기서 우리는 조국광복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렸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그날은 때없이 기승을 부리던 백두광야의 모진 추위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아침노을이 산천을 붉게 물들이며 태양을 불러오던 력사적인 날이였습니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의 정기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의 찬란한 향도성으로 탄생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이름모를 산야에 혈전을 뿌리며 광복의 새날을 맞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항일유격대원들과 왜놈세상에서 억압과 학대속에 살아오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이였으며 일대 경사였습니다.

이 경사의 날을 산천도 기뻐서인가 정가로운 흰 눈송이들이 축복의 꽃보라가 되어 밀영의 귀틀집창가에 소리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백두산밀영은 순간 환희에 넘치고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었습니다.

《아, 조선아 백두성탄생을 알린다》

《백두산에 **김일성**대장 계승인 탄생》…

정말이지 그때 우리 유격대원들이 너무 기뻐 나무들에 저저마다 글을 새기고 눈송이들을 올리추면서 웃고 떠들며 돌아갈 때 온 밀영이 떠나갈듯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유격대원들은 식량난과 추위난으로 하여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렬한 싸움과 군정훈련으로 날이 밝고 저무는 환경속에서 갓 탄생하신 그이를 포근히 감싸줄 한장의 포단마저도 귀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녀대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들이 입고있던 군복에서 솜을 뜯어내고 천조박을 모아서 쪽무이포단을 만들어드리였습니다.

눈보라이는 밀영의 밤이면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지성으로 누벼드린 그 쪽무이포단속에 어리신 장군님을 싸안으시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군하시였습니다.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

어머님께서 부르시던 그 노래가 지금도 머리속에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싸움과 행군으로 지쳤다가도 어리신 장군님의 영채도는 눈빛만 보아도 마음속의 온갖 시름이 불시에 가셔지고 새로운 용기와 열정이 가슴마다에 넘치군하였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령봉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이 확고히 뿌리내려졌음을 말해주는 전민족사적인 경사였으며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행복이였고 승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별리도 흘러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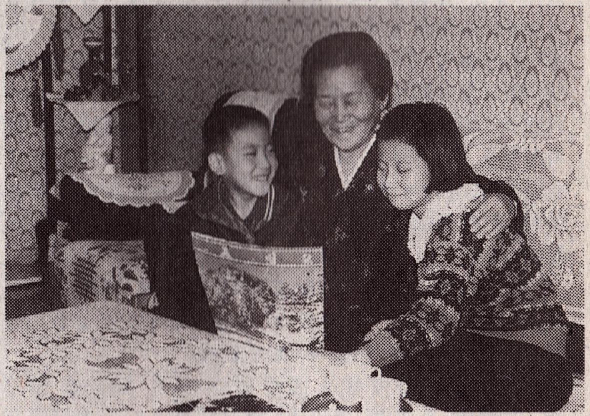
오늘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인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시여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고계십니다. 그이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사업에는 백두산의 기상이 용용히 맥박쳐있고 드팀없는 혁명가의 강의한 의지가 력력히 어리여있습니다.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은 지멀리 흘러간 백두산시절을 즐겁게 회억하면서 혁명의 찬란한 전도에 대하여 락관을 가지군합니다.

어제날에는 우리 세대가 어버이수령님을 제일선에서 결사옹위해왔다면 오늘은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이 길에서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기필코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항일혁명투사 리 영 숙



일 화

장군님과 병사의 일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던 주체84(1995)년 2월초 어느 날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수한 소형뻐스를 타시고 인민군군인들이 맡아 진행하는 어느 한 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건설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험했다. 울퉁불퉁한 길에 얼음버캐가 앉은 웅뎅이들까지 있어 차는 몹시 들추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준마를 탄것 같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차는 군인들이 한창 열을 올리며 일하고있는 작업장 한쪽의 은행나무아래에 가 섰다. 작업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군인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였다.

깊숙이 판 배수로에 둥근 콩크리트관을 들여놓느라고 《엿샤—엿샤—》하는 구령소리가 메아리치고 딸따리와 맞들이에 혼석을 담고 륙상선수들처럼 달리거나 산턱에 돌벽을 쌓는 군인들로 작업장은 들끓었다. 살을 에이는 맵짠 바람이 불어대는 추운 날인데도 군인들은 모두가 웃옷을 벗어던지고 땀을 철철 흘리며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지붕에 벽돌을 올리는 군인들의 동작은 참으로 볼만했다.

처마끝에 바싹 나앉은 한 병사가 손벽을 탁 치자 밑에 섰던 병사는 허리를 구부린채 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련속 벽돌장을 올려던지는데 총알같이 날아올라가는 벽돌장을 여유있게 받아 차곡차곡 쌓아놓는 병사의 모습은 마치도 솜씨있는 교예사를 방불케 했다. 벽돌을 올려던지는 병사도 받는 병사도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한 병사들의 작업모습을 보시고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장합니까라고 말씀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같이 추운 날에 옷을 벗고 맨몸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 동무들은 군인들의 저런 투지와 패기를 배워야 한다, 일하는것도 군인들이고 싸우는것도 군인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나라의 보배들이다, 때문에 동무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우리 군인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당백의 장수힘을 가진 저런 강철의 대오가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한 우리 나라는 금성철벽이다, 보면 볼수록 새 힘이 솟구치며 승리의 신심이 넘쳐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도 잠시후에 또다시 군인들이 장하다고, 저런 군인들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런데 이때였다. 한 병사가 딸따리에 세멘트를 싣고 바람같이 달려가다가 돌멩이에 바퀴가 걸채면서 그것을 모재비로 넘어뜨렸다. 그바람에 거기에 담겼던 세멘트가 쏟아져 흩어졌다.

병사는 딸따리를 넘어뜨린 커다란 돌멩이를 찾아들더니 결기어린 주먹으로 냅다 쳤는데 그것이 파편처럼 여러 쪼각이 나면서 그중 하나가 뻐스가까이에 날아와 떨어져 하마트면 뻐스유리창을 칠번하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대견하신듯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저 병사의 주먹이 간단치 않다고, 저런 주먹이면 그 어떤 원쑤도 무서울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나는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인민군대에 맡긴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당에 충실한 군대는 없다,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대상물건설장에 나와보고 기쁨을 금할수 없다, 저런 군인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당은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우며 긍지높은 불패의 당이라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정녕 인민군장병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 같으신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행복한 군대는 이 세상에 없으며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는 은정, 굳건한 믿음은 인민군군인들의 가슴가슴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더욱 불타게 하는것이다.

독립군의 마지막부대

최윤구는 평안북도 의주사람입니다. …

1925년에 우리가 무송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대영까지 마중나온 사람들가운데는 최윤구도 있었습니다. 그가 독립군말기에는 부사령, 사령으로 활약하였지만 우리가 무송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은 낮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그고장 사람들은 최윤구를 가리켜 《최참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불렀고 그의 직속상관들인 장철호, 오동진, 량세봉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사》란 최윤구에게 붙어있는 군사칭호였습니다. 그가 소대장이 된후에도 나는 그를 《참사아저씨》라고 불렀고 부대를 데리고 우리한테로 의거해 온후에도 우리 둘만 있을 때에는 소년시절의 버릇 그대로 《참사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

최윤구는 지지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대신 가슴속에 많은 말을 안고 사는 사람이였습니다. 입이 무겁고 속이 깊고 통이 크고 배짱이 센 그는 전형적인 무관형의 인물이였습니다.

최윤구는 17살인가 18살때 독립군을 따라 림강현 모아산에 갔습니다. 모아산은 백산무사단의 본거지였습니다.

…

1932년 여름에 나는 통화에서 최윤구를 잠간 만나보았습니다. 량세봉과 합작문제를 의논하느라고 그때 그와는 별로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

우리가 독립군과의 합작을 결정적으로 실현해야겠다고 결심한것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한후였고 그 결심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것은 백두산지구와 서간도에 진출한후였습니다.

그전에도 인민혁명군측에서는 독립군지휘부와 주동적으로 몇차례 접촉하였습니다. 독립군측에서는 민족반일력량이 서로 합작할데 대한 우리의 사상에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과의 련합과 관련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남만으로 떠나가는 최춘국에게 독립군과의 합작을 추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남만에 도착한 최춘국은 먼저 최윤구에게 나의 편지를 전달한 다음 두 군의 합동에 대한 문제를 내걸고 그와 비밀리에 담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춘국이 공동항일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설명하자 최윤구는 두 부대를 합치는데 대해 대뜸 지지하였습니다. …

최윤구는 어찌하여 독립군은 쇠퇴해가는데 인민혁명군은 번성해가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군기가 문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데 인민혁명군은 군기가 점점 더 강해져 적들조차 아우성을 치게 되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백성을 로략질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백성의 재물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먹고 입고 쓰고사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일본군만 만나면 련전련패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련전련승하는가, 어찌하여 독립군은 인민혁명군을 쓴외보듯하는데 인민혁명군은 독립군을 우군으로 보는가 하는 고민에 잠기였습니다.

최윤구는 그 원인을 민중적기초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독립군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것도 민중적기초가 약한데 있고 부패변질과정을 멈춰세우지 못하는것도 민중적기초가 견실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는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최윤구는 민중을 떠나서 민중우에 군림하고있는 독립군의 전망은 암담하지만 민중속에서 태여나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민혁명군의 앞길은 무한히 창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독립군의 민중적기초가 약한것은 달리는 될래야 될수 없는 필연적현상이였습니다. 독립군의 활동과 지향은 민중중심의 사상과는 인연이 먼 부르죠아민족주의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있었습니다. …

최윤구는 독립군이 쇠퇴, 고립, 붕괴되여가는 근본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인민혁명군과의 련합을 실현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이 구축해놓은 민중적지반우에서 활동할 때만이 민족앞에 지닌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활석은 인민혁명군과 련합하면 리득은 공산주의자들이 얻고 독립군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고 하면서 합작제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

사령과 부사령의 담판이 공회전을 거듭하고있는 사이에 부대의 형세는 몹시 악화되였습니다. 식량과 피복이 떨어진데다가 적들의 포위속에 빠져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였던것입니다. 엎친데덮치는격으로 도주하는 사람, 귀순하는 사람, 굶어죽는 사람들이 연방 생겨나는 바람에 장병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최윤구는 마지막결판을 낼 작정으로 사령과 최종담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의 제의에 응해나서지 않는다면 할수 없다. 대오가 두쪽으로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련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곁을 떠나는수밖에 없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이상 더 여기에 앉아뭉개다가는 우리가 전멸당하고만다. 장개석을 찾아가든지 **김일성**을 찾아가든지 각자가 소망대로 행동할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라고 들이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김활석은 그 제의에 동의해나섰습니다. 그의 지령에 따라 독립군의 전체 병사,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령은 부대가 겪고있는 어려운 처지에 대하여 비장하게 설명하고나서 《당신들중에서 **김일성**부대를 찾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

맨처음으로 대렬앞에 나선것은 김명준이였다고 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대원들이 대렬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선구자가 있으면 꼭 풀리는 법입니다. 김명준은 그야말로 선구자였습니다. …

그렇게 되여 부대는 두쪽으로 갈라지게 되였는데 갈라지고나서는 다들 울었다고 합니다. 김활석사령도 울고 최윤구부사령도 울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겁니다. 한몸이 둘로 갈라진셈이니 그 아픔과 고통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독립군은 두패로 나뉘여 조선이 독립되는 날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고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한 대오는 최윤구의 인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떠났고 몇십명밖에 안되는 다른 한 대오는 김활석의 지휘하에 봉황성부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남만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저항하던 국민부의 군대는 이렇게 해체되였습니다.

《나는 먼길을 에돌아서 이렇게 성주대장의 곁으로 찾아왔소. 곧바로 올수도 있는 길이였는데…우리가 너무도 우유부단했거든.》

이것은 최윤구가 남패자에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그의 의거를 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최윤구가 단행한 거사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와 민족통일전선력사에 대서특필할만한 의의를 가진 경이적인 사변으로 됩니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실시해온 통일전선정책의 승리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쌓아올린 또하나의 탑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의 련합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우고 참고로 삼아야 할 하나의 선구적인 본보기로 되였습니다.

그 본보기를 창조한 공로자들인 최춘국과 최윤구의 업적은 우리 나라 민족통일전선운동력사와 민족대단결력사의 한페지를 당당히 차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윤구를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최윤구는 련공의 선구자이며 그 실천자라고 말할수 있는 도량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항일무장투쟁사를 전문하는 력사가들은 민족통일전선운동사를 서술할 때 반드시 최윤구의 업적을 큼직이 써넣어야 할것입니다.

최윤구의 의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혁명운동선상에서는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의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최윤구는 사조로 볼 때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였습니다. 아버지네 세대가 대부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있었다면 우리네 세대는 대체로 공산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수화상극이라고 보던 두 세대의 애국자들이 결국은 리념의 차이를 뛰여넘어 공동항일의 길을 걸어가게 된것입니다.

최윤구의 거사는 리념이 다르고 신앙과 정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있으면 얼마든지 단결하고 화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줍니다.

최윤구는 인민혁명군에 넘어온후 공산당에도 입당하였습니다. 그는 참모일군의 요직에서 항일혁명의 승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1938년말에 화전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

주체의 태양의 빛발을 받아

기 념 사 진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의 생활에서 추억을 불러일으킬만한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긴다.

그러한 사진들을 가리켜 기념사진이라고 한다.

하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금고속에 소중히 보관해오신 기념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군이였기에 오늘도 만사람의 기억속에 길이 살아있는것인가.

나의 온 넋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잊지 못하시는 그 일군은 김책동지였다.

그이께서는 김책동무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능한 정치군사지휘관으로서 잘 싸웠을뿐아니라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산업시설은 왜놈들이 남긴 식민지적편파성으로 하여 매우 혼란되여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조국개선연설을 높이 받들고 새민주조선건설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그들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해방된 내 조국을 건설하는데서 보람을 느끼였다. 드높은 건국열의를 보면서 김책동지는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여도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는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주체36(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책동지가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산업국장사업을 겸하여보면서 교통국에 대한 지도도 책임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을 때에도 그를 내각 부수상겸 산업상으로 임명해주시면서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을 맡아 지도하는 부수상으로 사업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높은 신임을 거듭 받게 된 김책동지는 자기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것인가 하는것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주체37(1948)년 6월 23일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 남포유리공장을 찾으시여 공장건설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평양에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그를 남포시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판유리생산을 우리 자체로 할데 대한 과업을 받은 김책동지는 공장건설장에 나가 건설자들과 침식하면서 건설사업도 지도하고 판유리인상기도 만들며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밀고나갔다.

어느덧 공장건설이 끝나고 1년이 지나 용해로에 첫 화입을 했으나 판유리는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 유리생산은 우리 자체로는 불가능하다고 뒤소리를 쳤다. 공장에 랭랭한 분위기가 떠돌고 어둠이 구내를 드리울제 고요를 깨뜨리며 조용히 걷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김책동지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니 이것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 나의 온 넋을 바쳐서라도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는 이런 각오를 안고 동요하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판유리를 자체로 만드는것은 장군님의 요구이다. 우리가 지금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다보니 판유리인상기로 유리가 올라오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시험해서라도 꼭 우리 자체로 판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김책동지는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2년만인 주체39(1950)년 3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판유리를 생산하게 하였던것이다.

김책동지로 말하면 농촌에서 태여나 일찌기 청춘시절부터 오래동안 손에 총을 잡고 싸운 사람이여서 경제실무에는 전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혁명의 요구라면 추호의 동요나 구실도 없이 그 책임을 받아안았을뿐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히 수행하였던것이다. 하기에 수령님께서는 철도를 생각하시면 그가 해방직후에 철도수송의 정상화를 위해 그토록 애쓰던 일에 대하여 추억하시고 금속공업부문에 대하여 생각하시면 그가 해방직후 산업부문을 맡아가지고 혼란된 나라의 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애쓰던 모습에 대하여 추억하군하시였다.

삶의 순간을…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인 주체63(1974)년 4월 20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김책동지를 못잊어하시며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선 김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다진 맹세대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전사로 살며 싸웠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책동지의 한생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고 내각부수상이였다는 높은 직위나 명예보다도 무한한 충실성과 한없는 겸손성을 지닌 혁명전사의 고상한 풍모로 하여 더 빛나고있다.

나라에 준엄한 위기가 도래하였던 주체39(1950)년 10월중순,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에만도 300여척의 함선을 동원하였으며 15개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선에 들이밀며 《속전속결》을 호언장담하였다. 전선형편이 일초일각을 다투었다. 수령님께서는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그 준엄한 시기에 급속히 변천되여가는 긴박한 전선상황을 통찰하시고 새로운 방어부대를 편성하시였다.

그리고 그 임무를 전선사령관인 김책동지에게 주시였다. 평화의 날에나 전쟁의 날에나 항상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성실히 집행해온 그는 목숨이 지는 순간까지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리라 결심하고 새 방어구역으로 떠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전선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최고사령부와 김책동지사이에 련락이 끊어지게 되였다. 그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시던 수령님께서는 부관에게 급히 평양으로 들어올데 대한 임무를 주시여 그에게 파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책동지가 끝내 야전지휘소를 떠나지 않자 부관을 다시 파견하시면서 김책동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여기를 떠나지 않겠소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동지적우애가 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의 가슴은 마냥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불같은 생을 당과 조국에 헌신해오던 김책동지는 주체40(1951)년 1월 31일 뜻밖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으시여 김책동무가 죽다니 그는 죽지 않았소라고 격하신 음성으로 외우시며 진정을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책동지와 영결하던 그날의 애석함을 잊지 못하시여 기쁠때나 슬플때나 항상 그의 모범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것이다.

오늘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김책시,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나라의 곳곳에 그의 이름이 나붙게 된데는 김책동지가 발휘한 혁명에 대한 불같은 헌신성에서 비롯된것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소중히 보관해오신 기념사진, 그것은 수령께 충성다한 혁명동지의 고상한 충정, 김책동지의 불같은 생애를 잊지 못하시는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를 오늘도 세상에 길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윤 혁

민족의 자랑—백두대산줄기

우리 조국은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져있는 하나의 강토이다.

장쾌하면서도 신비롭고 아름다우면서도 억세인 백두산의 기상과 정기를 민족의 넋으로, 존엄으로 여겨온 우리 겨레는 백두에서 남해까지 하나로 이어진 백두대산줄기가 조선의 지리적기둥을 이루고있다는 사실로 하여 커다란 민족적긍지에 넘쳐있으며 백두대산줄기를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백두산으로부터 두류산을 지나 추애산과 지리산을 거쳐 남해의 구재봉(경상남도 하동군)까지 하나로 잇닿은 산줄기, 이 산줄기를 백두대산줄기라고 부른다.

백두대산줄기는 형태적으로 볼때 서로 련결된 8개의 산줄기들로 이루어졌다.

조국의 모든 산발들을 거느린 령장의 모습인양 높이 솟아 민족의 정기를 자랑하는 백두산으로부터 두류산에 이르는 백두산줄기가 백두대산줄기의 《맏아들》이다.

함경남도의 두류산(2,309m)에서부터 함경남도 정평군과 요덕군, 대흥군의 경계에 있는 사수산까지가 백두대산줄기의 《둘째아들》인 부전령산줄기이다. 그리고 사수산에서부터 평안남도 양덕군의 두류산(1,323m)까지 북대봉산줄기가 련결되여있고 북대봉산줄기의 두류산에서 강원도 세포군의 623고지까지 마식령산줄기가 잇닿아있다. 마식령산줄기의 623고지에서부터 강원도 회양군과 안변군사이에 있는 기대봉까지 600~1,000메터가 넘는 산과 봉, 령들이 줄지어 하나의 산줄기인 철령산줄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백두대산줄기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구재봉까지 뻗어져갔다.

백두대산줄기의 길이는 1,470키로메터(3,670여리)이다.

백두대산줄기는 35억~40억년의 장구한 지질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의 원인인 지피—화산운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형성되였다.

백두대산줄기는 조선의 기본산줄기(일명 등마루산줄기)이다. 다시말하면 우리 나라 지세의 척추로 되는 산줄기이다.

백두대산줄기는 함경산줄기, 마천령산줄기, 랑림산줄기, 만풍산줄기, 아호비령산줄기, 새덕산줄기, 례봉산줄기, 계방산줄기, 경상산줄기, 남원산줄기 등 다른 산줄기들에 비해서 훨씬 높고 웅장하다. 뿐만아니라 이 모든 산줄기들이 백두대산줄기와 이어져 가지산줄기를 이루고있다.

백두산전설

눈이 있는 총알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여 왜놈들을 족치신 이후 이 일대에서는 이런 전설도 생겨났다.

어느 한 마을에 머슴을 사는 무학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어느날 그는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쉴참에 같이 온 나무군들한테서 축지법을 쓰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부터 무학이의 마음은 자꾸만 백두산으로 향했다.

어서 장군님부대에 들어가 축지법을 배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무학은 백두산을 찾아 길을 떠났다.

집을 떠난지 꼭 아호레만에 백두산꼭대기에 이른 그는 거기서 방금 어디론가 떠나시려는 장군님을 만났다.

《장군님! 저는 지주집에서 머슴을 사는 무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축지법을 배워 왜놈과 지주놈을 쳐없애고저 하오니 저에게도 그 신기한 축지법을 배워주십시오.》

무학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청을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무학에게 지금 왜놈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무학이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어정쩡해 서 있는데 장군님께서 그에게 총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간단히 총알을 재우고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을 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무학은 그날로 장군님을 따라 부대와 함께 왜놈치는 싸움에 참가하게 되였다.

장군님의 부대는 고개 세개를 넘어서자 수천명의 《토벌대》놈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친히 대원들에게 총알을 나누어주시더니 왜놈들을 소탕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였다.

무학이도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을 재운 다음 왜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난생처음 쏘아보는 무학이의 총에서 총알이 씽하고 날아가자 왜놈 한놈이 나자빠졌다.

무학은 또 왜놈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아이쿠! 하고 왜놈이 또 나가자빠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 총을 잘 쏘는가?)

무학은 사기충천해서 있는 총알을 다 쏘았다. 쏠때마다 왜놈들은 하나씩 틀림없이 죽었다.

무학은 그만 총알이 떨어지자 어떻게 할가 잠시 궁리하였다.

그는 죽어넘어진 왜놈한테서 총알을 가져다가 재우고 쏘고 또 쏘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놈을 한놈도 명중시킬수 없었다.

(이상한데, 아까는 잘 쏘았는데 왜 이번엔 맞지 않을가?)

그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였다.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과 왜놈들의 총알은 똑같은것 같지만 실은 영 다른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에는 눈이 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신대원이라 해도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을 재우고 총을 쏘면 누구나 백발백중하는것이였다.

그때부터 무학이 장군님께서 주신 총알로는 한방에 왜놈을 세놈, 다섯놈씩 쏘아눕혔다는 이야기가 백두산지구에 널리 퍼져갔다.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기념

지난해 12월 24일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국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기념행사들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12월 23일 평양에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탄생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열리였으며 각 도, 시, 군, 련합기업소들에서도 기념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열리였다.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은 현대조선이 민족의 위인들을 받들어올린 성스러운 력사의 날들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전민족적명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오늘도 백두산의 붉은기와 함께 계시며 우리모두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에 휩싸여있다고 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생애와 혁명업적에 대하여 열렬히 토로하면서 모두다 백두에서 휘날린 혁명의 붉은기를 계속 높이 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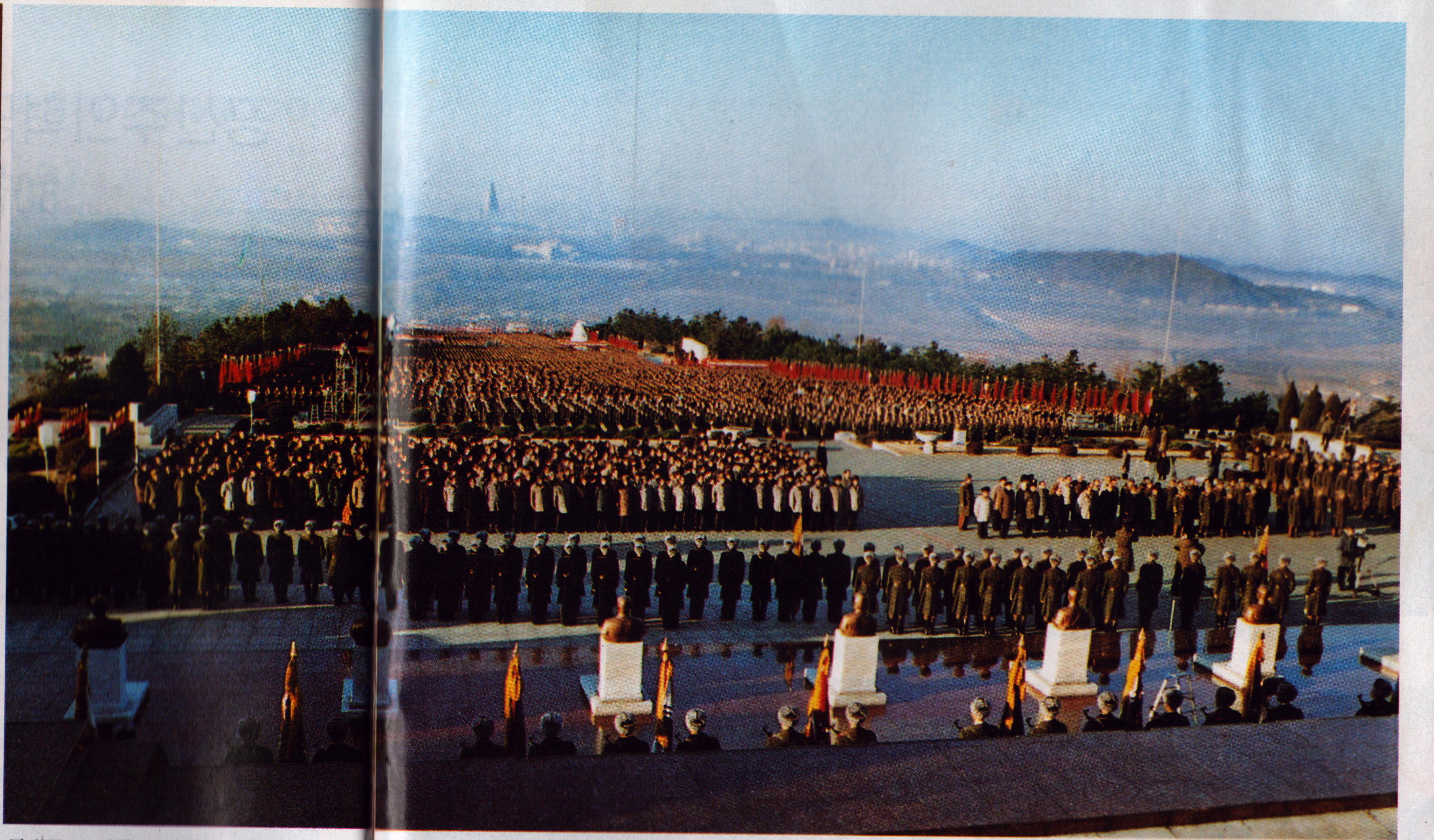
12월 24일 아침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경의를 표시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례식이 거행되였다.

례식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이며 수령결사옹호보위의 고결한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우리 당의 성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탄생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장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경의를 표시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례식(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러운 위업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보다 앞서 12월 20일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경의를 표시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당, 군, 청결의대회,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조국의 북변 회령시에 모셔진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23일에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셔진 어머님의 동상앞에서 조선소년단입단식이 진행되였다.

이외에도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기념 중앙과 각 부문별 연구토론회, 중앙미술전시회, 중앙사진전람회, 영화상영순간, 영화감상회가 열렸으며 전국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조원들의 미술작품전시회, 전국대학생들의 《문학의 밤》, 빙상휘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도 성대히 열리였다.

그리고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예술소조종합공연, 전국녀맹원들의 예술소조종합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평양과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다.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3대혁명전시관에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자료전시장이 꾸려지고 문화예술부 사적관에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판이 새로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 단위들에서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생애를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진정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국 건설투쟁에 한생을 바치시였으며 사선의 고비마다에서 절세의 위인 **김일성**동지를 결사옹위하시고 조국과 혁명의 창창한 앞날을 기약하는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리시여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어머님의 고귀한 업적을 가슴마다에 되새기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민족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굳센 의지로 충만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자료전시장

조선소년단입단식



빙상휘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공연의 한 장면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경의를 표시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당, 군, 청년의대회장(회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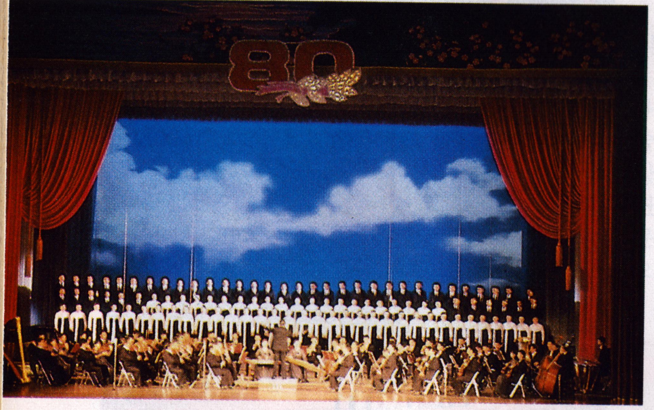


중앙미술전시회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이 유서깊은 회령의 고향집을 방문

기념무대 《조선의 녀장군》공연의 한 장면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



사진 정명준

조국통일의 절박한 요구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는 길을 밝혀준 애국, 애족의 대강이며 7천만 온 겨레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남관계의 개선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왜냐하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여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원래 북남관계의 개선은 화해와 신뢰, 단합을 전제로 하고있다. 아무리 북남관계가 중요하고 절박하다 하여도 오해와 불신, 대결이 조장되는 속에서는 그것이 실현될수 없다.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사상과 리념, 제도를 달리하고있지만 세상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다면 얼마든지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

홍콩의 중국귀속의 현실은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능히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오늘의 조성된 정세를 놓고보아도 조국통일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의 권력지반을 유지하기 위해 북남관계를 극한적인 적대관계로 전변시키며 외세와 야합하고있다. 그들은 지난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린데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과 도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사이에는 화해가 아니라 대결이 격화되고있으며 평화가 아니라 전쟁위험이 더 짙어가고있다.

만일 오늘의 이 사태를 그대로 묵인한다면 나라의 통일은커녕 민족의 운명을 파멸에로 몰아갈수 있다.

이처럼 북남관계개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시도 외면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절박한 요구로 될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는것이다.

그러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그리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이 선차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된 동족의식을 가지고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북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을 철페하고 남조선에서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실지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시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넓은 포옹력과 아량, 대용단의 구체적표현인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통일헌장이다.

본사기자

김정일화는 어떻게 태여났는가

김정일화는 오늘 꽃의 왕자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원예전문가들과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절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알뿌리베고니아의 새 품종인 이 꽃은 1988년에 나의 화초원에서 키워낸것인데 그때 **김정일**화라고 이름지어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 삼가 올린것이다.

10여년전에 나는 평양에 있는 중앙식물원을 방문하였는데 **김일성**화가 온실정면에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이 꽃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이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신 꽃이다.

나는 안내원에게 물었다.

《**김일성**화가 있으면 **김정일**화도 있겠지요?》

《아직 없습니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때부터 **김정일**화로 불리울만한 꽃은 과연 어떤것이겠는가 하는 물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나의 화초원에서는 꽃창포, 알뿌리베고니아, 벗꽃, 나리꽃 등의 육종을 벌려놓고있었는데 **김정일**화로 불리울만한 독자적인 높은 수준의 새로운 꽃은 없었다.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알뿌리베고니아에서 새 품종의 꽃을 키워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알뿌리베고니아는 안데스산줄기의 높은곳에서 피는 몇개의 원종에서부터 구라파와 아메리카, 일본에로 넘어오면서 백수십년간 섞붙임을 거듭하여오는 과정에 오늘과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른 화려한 꽃이다. 내가 웽그리아계 미국인 라이넬드와 일본의 요시에 세이로선생에게서 처음으로 알뿌리베고니아를 입수한것은 거의 30년전의 일이다. 이 꽃들은 여태껏 본적없는 훌륭한 꽃으로서 나를 경탄시켰지만 더위에 견디지 못해 얼마가지 못하고 한두해사이에 다 시들어버렸다. 실망한 나는 한동안 그저 모대기고있었다. 그런데 알뿌리베고니아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인 영국의 랑톤씨, 벨지끄의 하그맨씨, 미국의 안터네리형제들을 알게 되여 다시 새 출발을 하였다.

김정일화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을 때 그것은 세기를 대표할만한 리상의 꽃이여야 하였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먼저 힘이 넘쳐나는 사자형피기의 매우 큰 송이꽃을 생각하였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만첩의 탐스러운 꽃을 좋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자형피기라고 하면 꽃모양이 일본특유의것으로서 그런것을 매우 진귀하게들 여기여왔다.

사자형피기란 일본의 민속무용인 탈춤《돌다리》에 나오는 사자의 용맹한 모습을 말하는데 줄무늬가 간 물결형의 수많은 꽃잎이 겹겹이 피여나 남성적이고 시원하게 전개된것이다.

마침내 이러한 사자형피기의 성격에 맞는 품종이 얻어지게 되여 그 꽃을 **김정일**화라고 부르게 되였다.

1991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열린 세계화초전시회에서는 평양에서 출전한 **김정일**화가 그 선명한 색갈과 뛰여나게 웅장한 모습, 독특한 전시양식 등으로 하여 전례없는 절찬을 받았으며 영예의 금메달수상자로 되였다.

나와 조선 평양의 중앙식물원과의 교류는 **김일성**주석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일본에서 수많은 식물을 선물로 올린 그때부터 시작되였다.

나는 1963년에 함부르그에서 열렸던 국제화초전시회때부터 시작하여 윈, 빠리, 몬트리올 등에서의 국제전시회들에 참가하였으며 그때마다 많은 식물을 여러 나라들에 기증하여왔다. 그러므로 서구라파와 미국의 화초원들과 중국의 운남식물연구소, 로씨야의 모스크바중앙식물원, 레닌그라드식물원 등에서는 내가 보낸 꽃들을 적지 않게 기르고있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중앙식물원에서처럼 그렇게 큰 힘을 넣어 일본에서 보내온 식물을 자래우고 다른 식물원에도 보급하기 위해 애쓰는데는 없다. 이런 과정에 자연히 교류는 심화되였다. 그 이후 초롱꽃 250품종, 나리꽃 100품종 그리고 련꽃같은것들이 더 첨가되였으며 드디여 **김정일**화가 태여나는데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일본 후지국제화초원 원장
박사 가모 모도데루

장군님만 믿고 삽니다

온 세상사람들이 금수강산이라 부르는 조선, 조종의 산, 백두산의 해돋이로부터 찬란히 밝아온 이 나라 강산에 환희로 들끓는 인민들의 신념의 노래가 메아리치며 울려퍼진다.

…
온 나라가 운명을 맡기고 삽니다
온 세상이 미래를 의탁합니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세월 흐른대도
김정일장군님만을

이 노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의 송가이며 7천만겨레가 한결같이 청을 모아 부르는 위인에 대한 찬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가장 진실하고 고결한 사상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신념의 노래, 거기에 담겨진 절대적인 숭배심은 과연 어디에 그 원연을 두고있는것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것보다 더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래서 지난날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숭배심은 그 어떤 신비로운 존재나 《하느님》에게 자기 운명을 의탁하는 그런 숭배심이 아니라 력사의 흐름속에서 감득하고 확고해진 실재적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며 태양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0여년전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적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수령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자세와 립장에서 당과 혁명을 령도해오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이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부르며 영광의 날에도 시련의 날에도 자기의 운명을 장군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탑을 건립하시여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이 더 빛나게 하시였을 때,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였을 때, 조선청년운동이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한 빛을 뿌리게 하시였을 때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념원이 하나하나 실현되여나가는것으로 하여 그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

어버이수령님 생전에 력사가 알지 못하는 충효로 수령님과 인민의 숭고한 혼연일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애석하게도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자 수령님을 무궁토록 높이 모시려는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최상의 높이에서 풀어주실것을 력사적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성지, 태양의 성지로 꾸리도록 하시여 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은 그이께 진정으로 다함없는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의 오늘과 빛나는 래일을 한몸에 안으시고 인민의 운명을 보호해주시며 승리와 영광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신다.

몰아치는 제국주의의 광풍으로 수령도, 당도, 사회주의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바람부는 한지에 나앉게 된 일부 나라 인민들의 절통한 통곡소리로 력사의 참극이 기록될 때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라고 하시며 사회주의고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제국주의 고립, 압살의 광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였다.

그 력사의 나날을 거쳐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의 감정은 더욱 굳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도 있고 수령님의 유훈도 빛나게 실현되며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이런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운명의 구세주로 믿고따르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남다른 사랑의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는 바로 그런 절대적인 숭배심에 원연을 두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수필

민족성에 대한 생각

귤빛 석양노을을 바라보느라니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범민족대회에서 열변을 토하던 겨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범민련 해외본부 서만술부의장, 범민련 림민식사무총장,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양영동의장, 범민련 재미본부 류태영공동의장,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정학필의장,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리준식공동의장, 범민련 오스트랄리아지역본부 안경록고문,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조윤해사무국장, 범청학련 해외본부 박구호공동의장의 열기띤 모습들이…

지구촌 각이한곳에서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에서 사는 그들이 어찌하여 평양에 모여 고국의 통일을 이룩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반통일세력을 규탄하는 열변을 토하는것인가.

그것은 민족성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의지가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어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자료에 의하면 오늘 지구촌에는 1,200여개의 대소민족이 살고있다고 한다.

민족이란 피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분포되여 집단을 형성하고 사는 그러한 민족들은 다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가진다.

하다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느라니 지난해 6월에 발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가 떠오르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장군님의 이 명제는 우리의 민족성에 대한 특성을 밝혀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력사는 유구하다.

남다른 슬기와 재능으로 창조한 찬란한 민족문화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수한 민족성을 자랑해온 조선민족이다.

참다운 령수를 모시지 못한 민족은 자주적인 사상리념을 가질수 없으며 그러한 민족은 미세한 세파에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며 멸족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아세아동남부에서 1,000년동안 강성을 누려온 참파족이 타국의 위성국이 되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동화되여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되였으며 오늘 《보호구역》안에 갇혀 민족이 동화되여가고있는 미주의 아파치민족이 그를 실증해주고있지 않는가.

우리 민족도 오랜 세월 수많은 내우외환을 겪어왔었다.

하여 일제의 강요에 의한 망국의 치욕스러운 날도 민족사에 남기게 되였던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정신적지주, 참다운 리념을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을 사대망국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번영의 대로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구세주이시고 민족의 원시조와 력사까지 찾아주신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시다.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민족사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영광은 하늘에 닿았다.

그 영광속에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충효심이 신념으로, 도덕의리로 간직되게 되였다. 그리고 충효심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모든 우수성이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효심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후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 못다 바친 충성까지 합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받들어모시는 우리 인민, 우리 겨레들이다.

참으로 우리 겨레는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지니지 못한 가장 고결한 풍모, 가장 훌륭한 민족성을 지니고있다.

그래서 해마다 조국광복절에는 평양에 모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범민족대회를 가지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어느 민족도 지니지 못한 민족성을 지닌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들은 몸은 비록 이국땅에서 살아도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에 한몸바쳐 나서고있으며 조국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최대의 영예로 간주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철

조국통일을 위해 나도 노력할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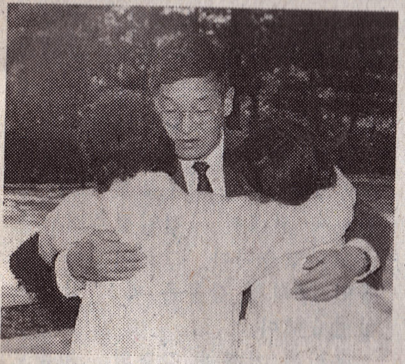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고국방문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싸할린에서 온 김두주동포는 안주에서 녀동생 김녀옥과 조카를 만났다.

《이게 얼마만이냐?…》

《오빠,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몰라요. …》

그리웁던 정이 부딪치는 순간 오랍누이 김두주와 김녀옥은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들이 헤여져 살게 된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였고 서로 만나보았던것은 7년전이였다.



동생과 조카를 만나는 김두주동포

꿈결에도 그리운것은 혈육의 정인것이다.

국경너머 멀리 타국에 떨어져 살면서 언제면 다시 만날가 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들형제는 이번에 다시 그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였던것이다.

김두주동포는 누이동생 김녀옥과 만나기전에 평양에서 살고있는 남동생 김두복 그리고 회령에서 살고있는 막내남동생 김두현과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형제중 홀로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김두주동포에게 있어서 이번의 혈육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뜻깊고 추억에 남을 귀중한것이였다.

김두주동포는 형제들과의 상봉시 고국방문소감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를 하였다.

…형제들을 만나고싶었던 애끓는 소원을 이번에 이루었다. 고국땅을 밟고보니 또다시 마음이 별스러워지고 한껏 부푼듯한 감이 나를 휩싸안아주는구나.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일심단결하여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을 내 눈으로 감동깊이 보았다.

더우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고 그 경사로 온 나라가 춤과 노래로 들썩거리는것을 보니 이국에서 온 나로서는 생각되는바가 참 크다. 조국이 빨리 통일되여야 한다. 조국통일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나도 굳게 믿는다.…

《오빠, 오빠도 이국에서 살고있지만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문제에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본분을 꼭 지켜야 돼요.…》

《음, 그래 그렇지. 통일을 위해 나도 꼭 노력할테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서로 조국의 비극적아픔을 자신의것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가시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할 굳은 의지를 서로 나누며 상봉의 순간순간을 뜻깊게 보냈다.

위암을 예방하는 된장

된장국은 위암을 미리 막는데 아주 좋다고 한다.

된장속에 들어있는 효모와 젖산균은 발암성물질들을 없애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때문이다.

의학자들은 20마리의 쥐를 두개조로 나누어 1년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번째조에는 마른된장이 10프로 들어간 먹이를 주고 두번째조에는 소금이 섞인 먹이를 먹였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위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먹이에 첨가하여 쥐들에게 주었는데 된장을 먹이는 쥐들에게는 특별히 위암유발물질을 더 많이 먹였다.

그후 된장을 먹인 쥐무리에서는 35프로가 위암에 걸렸고 소금을 먹인 쥐무리에서는 50프로가 위암에 걸렸다.

결국 된장을 먹은 쥐들은 소금을 먹은 쥐들에 비해 발암성물질을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한다.

평양에서의 2년 생활을 더듬으며

(자애로운 **김일성**주석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다함없는 배려와 은정을 두고)

— 장울화의 손자 장유, 외손녀 악지운 —

인류는 세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자기의 운명문제를 놓고 여러가지로 생각하면서 그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은인을 갈망하면서 장구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신》이나 《하느님》을 숭상하기도 하고 임금을 떠받들고 국왕을 찬미하며 따르기도 하였으나 어느 시대에도 인민들에게 진정한 락과 복을 주는 그런 《신》이나 《하느님》, 위인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세기에 세기를 이어오며 바라던 구세주, 인류의 태양은 현세기에야 솟아올라 세계를 밝게 비치였습니다. 그 위대한 구세주, 인류의 태양은 바로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의 운명개척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락과 복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정하여주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만민의 수령, 인류의 어버이로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을 따르며 칭송하는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과 깊은 연고가 있는 우리들도 바로 그런 가슴속충동을 금할수 없어 필을 들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려는 이야기 역시 우리 가문의 운명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구세주이신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애젊은 우리들을 조선류학의 길에 불러주시고 앞길이 창창하게 빛나도록 하여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입니다.

무송과 베이징에 비쳐온 은혜로운 해빛

붓을 드니 우리들이 하려는 이야기가 시작되던 그날에 있었던 일부터 선히 떠오릅니다.

그날은 1992년의 풍요한 가을 향취가 무송거리와 베이징시가에 넘쳐나던 날이였습니다.

무송의 옛 소남문거리의 고삭은 집에 살고있는 나(장유)와 베이징의 어느 한 거리에 살고있는 나(악지운)에게는 참으로 희한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처럼 흠모하며 존경하는 위대하고 자애로우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들을 한날한시에 조선류학의 길에 불러주신것이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의 하나로 알려진 베이징에서 사는 나(악지운)는 말할것도 없고 지방도시에 불과한 무송에서 사는 나(장유)로 말하면 창해의 모래알과도 같은 존재여서 장유라는 청년이 한마을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마을, 한도시, 한나라안도 아닌 국경너머 조선에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명성높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그들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존재와도 같은 우리들을 알아봐주시고 조선류학의 길에까지 불러주시였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늘진곳도 다 비쳐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사랑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어느 나라 령도자가 다른 나라의 평범한 애젊은 청년들을 생각하여 몸소 류학의 길에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동무들은 물론 이웃들도 크게 감탄하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사자들인 우리의 감동은 더 말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뒤엉키는 격정의 가슴을 안고 그해 10월 평양에 도착하게 되였습니다.

평양역에서 우리들을 맞이하여준 일군들의 진정과 화려하고 아늑한 숙소, 만나는 사람들의 정다운 인상… 그 모든것은 우리들에게 따사로움과 한없는 즐거움, 끝없는 희열에 부풀게 하는 생활의 자양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들은 그 자양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이틀 날이 가면서 우리들에게 안겨지는 복된 생활이 보통의것이 아니며 류다르게 자별하며 웅심깊고 뜨겁다는것이 느껴져서야 그 진뜻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 진뜻은 다름아닌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들의 친부모가 되여 안겨주시는 사랑이였습니다.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들의 조선류학에 깊은 관심을 두시게 된것은 1991년 10월 30일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날 해당 부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조선말을 배워주었으면 하는 나(장유)의 아버지 장금천과 나(악지운)의 어머니 장금록의 소망을 알게 되신 주석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 뜻을 이루게 해주도록 은정넘친 교시를 주시였다고 합니다.

그후에도 주석님께서는 우리들을 조건이 좋은 대학에 넣어 공부시키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기숙사생활을 시킬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집을 한채 주어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할수 있게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 호강스럽게 키우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생활조직을 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주일에 한번씩은 자체로 때식도 해먹고 터밭도 가꾸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대학으로 오고갈 때에 승용차만 타고다니지 말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게 하라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우리들에게 바치시는 어버이주석님의 뜨거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조선말을 잘 배울수 있고 교육조건이 좋은 국제관계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여주시고 숙소도 가장 좋은곳으로 정해주시였으며 평양에 도착하는 날에는 간부들이 역에 나와 영접도 하고 옥류관에서 동석식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조선말을 배워주는 선생을 좋은 선생님들로 배치하여 그들이 《어머니선생》으로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던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놓고 진행된 류다른 개학모임도 이렇게 마련된것이였고 우리들이 다니는 자전거길이 험하지나 않는가, 자체로 때식을 해먹는데서 별다른 일이 없는가를 일군들이 료해해보고 세워진 구체적대책도 이렇게 마련된것이였습니다.

그러던 1992년 11월 17일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그간의 학습정형과 생활을 료해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류학생용 조선어교재를 가지고 자모와 단어쓰기, 읽기, 간단한 회화문장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쉬운 글을 천천히 읽고 쓰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생활을 조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신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일요일에는 제손으로 한두가지씩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학습과 생활은 사소한 불편도 없는 참으로 행복하고도 긍지로운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료해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학교로 오고갈 때 자전거를 타고다니려면 평양의 거리가 생소하여 불편해할수 있으며 또 공부에만 치중하다나면 생활을 명랑하게 하지 못할수 있다는것을 헤아려보시였던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평양의 거리를 파악할 때까지, 그리고 일기와 교통 조건이 불리할 때에는 승용차를 타고다니고 그밖의 날들에만 자전거를 타고다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고급자전거와 악기를 선물로 보내주시였습니다.

친부모인들 이렇듯 살뜰하고 세세하게 보살펴주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런 뜨거운 은정에 목이 메여 우리들은 존경하는 그이께 격정의 눈물로 얼룩진 감사의 편지를 삼가 올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보다 큰 영광이 각일각 다가오고있는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처럼 만나뵙고싶던 자애로운 **김일성**주석님께서 그해 11월 30일에 우리들을 친히 불러주신것이였습니다.

엎어질듯 달려가 안기는 우리들을 뜨겁게 포옹해주신 주석님께서는 너희들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인차 만나려고 하였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여 오늘에야 만나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앓지는 않았는지, 공부하기 힘들지는 않는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물어보시였습니다.

아무러한 불편이 없이 공부하며 생활하고있다는 저희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석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시는듯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동석한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오늘 장울화의 손자, 외손녀를 만나니 기쁩니다. 장울화는 나의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혁명가였습니다. 장울화의 혁명투쟁력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석님의 말씀에 접한 우리들의 가슴은 뭉클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신 흥 공 업 지 구

신흥공업지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령역안에 새로 창설된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진—선봉지구에서도 《매력있는 공업지대》로 투자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곳이다.

라진—선봉지구가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되자 수많은 나라와 회사들, 개별적기업가들이 신흥지구에 피복공장, 편직공장, 타올공장, 가정용랭동기공장, 반도체공장, 전자요소공장, 전자계산기공장, 천연색텔레비죤공장 등을 투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신흥공업지구(250정보)는 첫단계 주체84—89(1995—2000)년 대상으로 선정되여 본격적으로 건설이 추진되고있으며 항과 철도, 도로도 큰 투자없이 리용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신흥공업지구에서 가까운곳에 있는 라진항과 라진역은 오래전부터 무역화물수송을 하고있다. 라진항만 보더라도 현재 3개의 돌출부두에 2,500여메터의 길이를 가진 10개의 안벽과 38만평방메터의 창고 및 륙상부지를 가지고있으며 항통과능력은 400만톤 년이다. 봉사후생시설도 비교적 원만히 꾸려져있다.

투자대상으로 설정된 라진항은 가까운 기간에 국제적규모의 모든 배들을 다 취급할수 있도록 건설되여 360만TEU/년의 짐함을 처리하게 된다. 신흥공업지구는 토질과 수질 조건도 좋고 풍치 또한 아름답다.

신흥공업지구는 또한 종합적인 경공업기지로 될것이다. 한해에 140만착의 녀자옷을 생산하는 피복공장과 15만착의 잠바와 200만착의 솜옷을 생산하는 피복공장을 비롯하여 타올공장, 쟈크공장, 수예품공장, 신발공장, 놀이감공장, 남새가공공장, 수산물가공공장, 국수공장, 우산공장, 가방공장 등도 투자대상으로 되고있다.

또한 20만대 생산능력의 가정용랭동기공장과 10만대 생산능력의 재봉기공장도 합영, 합작의 투자대상으로 되고있다.

신흥공업지구에는 투자가들의 희망에 따라 전자계산기공장과 전자요소공장, 천연색텔레비죤공장과 같은 대상들도 예견하고있다.

신흥공업지구에 다른 나라와 회사, 개별적기업가들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우리 나라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지구에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새로 건설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이 수송선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과 점판암 등 많은 원료들을 수송하는데 쓰이고있다.

수송선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모체기업소로부터 2.8직동청년탄광, 점판암광산으로 줄줄이 뻗어나갔으며 탄광의 갱밖은 물론 갱안깊이에까지 련결되여있다. 수송선의 총길이는 5,900여메터이며 갱안에 설치된 벨트콘베아의 길이는 2,300여메터이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뻗어간 수천메터의 구간에는 여러개의 중계소들과 원동소들이 건설되여있다.

수송선은 1호, 2호, 3호, 4호, 4—1호 콘베아와 사슬콘베아 등 13개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탄광으로부터 무연탄을 운반할때에는 사슬콘베아공정과 4—1호 콘베아를 포함하여 8개의 콘베아가 리용되고 광산으로부터 점판암을 수송할 때에는 5개의 콘베아가 가동된다.

한해에 수백만톤의 석탄과 점판암을 비롯한 물동을 수송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수송선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세멘트생산을 더욱 늘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많은 석탄과 점판암을 비롯한 물동들을 화차나 대형자동차로 운반하여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 수송선이 가동됨으로써 많은 운수수단들과 기계설비들을 다른데 돌려쓰게 되였으며 막대한 량의 기름과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서 지난해 10월에 건설되였다.

본사기자 윤 대 중

인상기

하나가 된다는것은…



정 학 필

저는 지난해 8월 제8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북녘동포들을 대하니 무척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서운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가봅니다.

사실 조국을 떠나 멀리 타향에서 사는 우리들의 심정은 참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단지 그곳이 나서자란 고향이 아니라는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것은 조국이 분렬되여 반세기를 넘겼다는데 있지요.

아시다싶이 올해는 7. 4공동성명이 발표된지 스물여섯돐이 되는 뜻깊은 해가 아닙니까.

제8차 범민족대회도 공동성명에 준하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고자 열렸던것입니다.

7. 4공동성명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련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3자련대에 기초한 민간통일운동의 모체인 범민련이 주동하여 해마다 열리고있는 범민족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내외에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더욱 널리 알리게 되였으며 7천만 동포들에게 통일의 절박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리고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오가고 만나면서 불신을 우애로 바꾸고 혈육간에 신뢰를 두터이한다면 북남간에 쌓여진 랭랭한 분위기도 인차 해소될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가 된다는것은 우리 민족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 조국이 부흥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민간단체로서의 우리 범민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민련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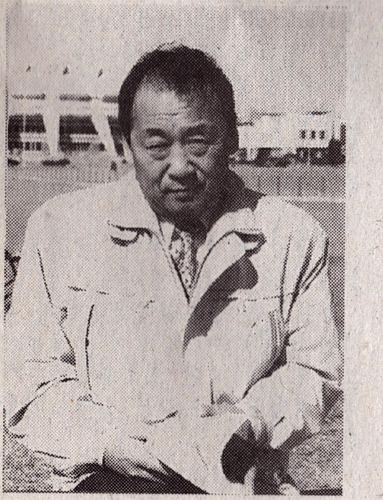
저희들 카나다지역은 범민련 해외본부 산하의 한 지역에 지나지 않지만 한사람한사람, 한 지역 한 지역이 과감히 그리고 성실히 조국통일투쟁의 대렬에 참여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믿고 적은 힘과 정성을 바쳐 통일운동에 이바지하렵니다.

그것이 장래 우리들자신을 위한 길이지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카나다지역 본부 의장 정 학 필

인상기

련방제통일방안이 옳다



오 의 웅

뜻깊은 고국방문의 나날이 거의 끝나갈무렵, 나는 《금수강산》잡지의 기자로부터 고국방문소감에 대하여 얘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꼭 고국방문인상담이라고 해야 할지, 그보다는 동질의 피를 나눈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고국땅을 밟으며, 고국의 이모저모를 돌아보며 심중에 깊이 새겨진 말, 꼭 그렇게 되여야만 하는것으로 느껴지는 민족적량심이 가리키는 말을 간단히 하려고 한다.

세계가 랭전의 종식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 조국의 통일문제는 더욱더 초미의 문제를 이루는것이다. 하루빨리 통일되여 민족분단의 비운을 가셔야 하는것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로 되고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명철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두개 제도, 두개 정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안은 진정 력사적으로 변태를 모르고 형성되여온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발양시키면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융합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제시한 공

명정대한 방안이다.

조선의 통일은 어느 한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과 남에 있는 제도를 공존, 공영시키는 방향에서 통일하는것이 주변 나라들의 리해관계에도 부합되는것이다.

련방제가 실현되면 조선에서 군비경쟁이 정지되고 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전변되여 북남사이의 군사충돌을 제거하고 조선반도가 발화점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지대, 완충지대로 전변될수 있는것이다.

나는 그어떤 리론가도 아니며 정치전문가도 아니다. 다만 고국방문의 나날에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과 동족의 우려를 지녔기에 민족의 비극을 가실 중요한 방도에 진심으로 공감하였던것이다.

아울러 깊은 인상으로 간직하게 되는것은 고국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그 어디에도 머리를 돌리거나 기웃거리지 않고 억척스레 나라를 건설해가는 모습이였다. 정말 그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통일만 되면 7천만 우리 겨레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아세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조국인민들이 그처럼 미래를 락관하듯이 나역시 민족의 앞날을 긍지있게 바라보고있다. 그러한 긍지감은 해외에서 살고있는 나에게 민족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을 더욱 자각케 하고있다.

나도 이국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있는 힘껏 노력하겠다는것을 부언해두는바이다.

로련 싸할린주 싸할린스크시
오의웅

인상기

장군님 계시여 우리 마음 든든합니다



남송죽

조국을 멀리 떠나 해외에서 살고있는 저희들은 생활에서 늘 허전한 느낌을 지울수 없어 하늘가의 구름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군하였습니다.

저 하늘가의 구름이 떠가는곳이 그리운 조국땅이던가 하고 생각해보면 어느덧 가슴이 뭉클하고 눈굽이 쩌릿해집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은덕군 은덕읍입니다.

1살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조국을 떠난 제가 40대가 넘도록 조국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한 제가 지난해 10월중순경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으니 길지 않은 조국방문체류기간에 느낀 감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환희입니다.

기쁘다는 말로만 저의 심정을 표현하기에는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크고 가슴은 마냥 벅차기만 합니다.

제가 조국을 방문했을 때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한 직후여서 가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기쁨과 환희가 하늘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김일성**민족의 행운이고 우리 해외동포들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조국방문기간 듣던것과는 정반대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았으며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나라도 지키고 만년대계의 건설도 하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해나가는 영웅적기상을 보고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해외동포들의 존엄과 삶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가꾸어지고 망울져 활짝 꽃펴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지켜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며 삶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조국의 위대성은 곧 우리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이며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대성입니다.

장군님 계시여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도 든든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중국 길림성 왕청현 왕청진
남송죽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향방구 중산로 99호 리민 고모앞

《사향가》를 들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그리워만지는 고모, 그간 안녕하십니까?

집에서는 다 무고한지요?

년로한 몸으로 어려운 사업을 맡아하느라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추운 계절이라 혹시 감기에라도 걸리지 않으셨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항일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신 진뢰고모부도 건강하신지요?

저의 충심으로부터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모가 일전에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모부가 상해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신후 다시 새로운 치료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후 어떻게 되였는지 소식이 없어 궁금하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고가 없으리라는 스스로의 위안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고모나 고모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들은 모두 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리원에 살고있는 경숙언니와 은파읍에 있는 현숙언니가 집에 오군하는데 자연히 고모와 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로 밤가는줄 모른답니다.

아마 혈육의 정때문이겠지요.

간단히 집소식을 전한다면 저는 여전히 농장 잠업작업반에서 분조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맏딸 정옥이는 대추작업반에서 일하고있고 보육원학교를 나온 송옥이는 공예작업반 보육원으로 있습니다. 양동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하는 셋째딸 윤옥이와 넷째딸 윤희는 학교적으로 손꼽히는 최우등생이랍니다. 기타와 손풍금은 또 얼마나 잘 타는지 고모가 오시면 들려주겠다고 고모가 사랑하는 노래 《사향가》도 준비했답니다. 은은한 반주에 화음까지 맞추어 부르는 네딸의 모습이 전문예술가들을 방불케 한답니다. 그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느라면 주체81(1992)년 4월에 저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일들이 어제일처럼 삼삼히 떠오릅니다.

그 나날 고모는 노래 《사향가》는 항일전쟁시기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와 함께 자주 부르던 노래라고 하면서 우리들앞에서 감회깊은 표정으로 부르셨지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립던 혈육들과 함께 고향의 흰쌀과 물로 지은 윤기도는 밥과 식찬 그리고 300년 자란 고향의 대추나무에서 딴 대추를 맛보느라니 자연히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항일혁명전장에서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생각이 난다고 눈굽을 적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고모님은 말씀하셨지요.

《바로 여기 고향땅에는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고모.

우리는 고모의 의미심장한 그 당부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리운 고모, 전번 편지에 인츰 고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였는데 꼭 오십시오. 오시면 새해에도 희망과 락관에 넘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고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인민들의 참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사촌오빠집을 찾은 리민과 그의 남편 진뢰

하고싶은 말, 나누고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이만 펜을 놓습니다.

황해북도 은파군 양동리
리옥숙조카가 올립니다.



통일의 광장에로 달리는 마음

오늘 남녘인민들속에서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추앙심이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정녕 지나온 일력을 한장한장 번지노라면 사연깊은 이야기들은 그 얼마였던가.

…
통일의 개선문 높이 세우고
민족의 어버이 맞이하리라

(후렴)
남녘의 민중은 기다립니다
김정일장군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일편단심 받들려는 남녘의 고결한 민심을 반영한 노래 《기다립니다》의 한구절이다.

오늘 남조선의 유명무명의 시인들과 기자, 언론인, 청년학생, 량심적인 종교인, 대학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은 그이에 대한 흠모심을 감추지 못하며 자기들의 글과 론문들에서 심장으로 체득한 량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 집필하신 로작들을 탐독하여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있으며 그속에서 시대의 방향타를 찾고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년례적으로 기념하고있으며 그이께서 민족과 인류 앞에 이룩하신 업적들을 널리 보급하고 선전하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벌려나가고있다.

참으로 장군님의 사상과 덕망, 인품에 매혹된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은 그 어떤 물리적힘으로써도 막지 못하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이러한 흐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의 래일을 이끄실 탁월한 령도자, 민족의 구세주,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는데로 모아지고있다.

서울시 마포구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통일애국회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을 추모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토론한바 있다.

…우리 겨레의 통일열망은 하늘에 충천하나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반통일세력들의 집요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김일성**주석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 있고 그분의 통일유훈을 실현코자 불철주야로 로고를 바치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의 진두에 계신다.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주석과 꼭 같으신 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이시다.

남조선 외국어대학교 리상진교수는 자기의 글 《21세기 향도자와 민족의 긍지》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겨레는 그가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선양하시는 장군님을 모신 무상의 긍지를 량심으로 간직해야 한다.

민족은 곧 **김정일**장군님이시라는 신념과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길에 통일조국도 21세기에 번영할 민족의 미래도 있다는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이것은 남녘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얼마나 열렬히 신봉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이 시각도 남녘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감추지 못하며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통일은 문제없다는 배심에 넘쳐 반통일세력들의 모진 탄압과 회유압살책동에도 굴함없이 용감히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정의는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는 인민들의 편에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 민

쌍 기 둥

생활에서는 모든것이 상대적이라고 한다.

가슴 벅차게 하는 큰 행복도 있고 따스한 미소를 주는 작은 기쁨도 있고…

지난해 7월초 우리는 신의주에서 중국 료녕성 단동시 진흥구에서 살고있는 차복신동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안고있는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차동포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딱히 어디라없이 온몸을 쑤시는듯한 아픔에 번번히 자리에 누웠다고 한다.

점차 7월이 다가오면서 차복신은 마음이 초조하여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신의주에 모셔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는 행사에 건강상관계로 못참가할수 있다는 우려감때문이였다.

이웃나들이도 아니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먼길을 다녀오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 석문창은 병색이 짙은 안해의 얼굴을 보며 말하였다.

《병자에게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는 말이 있소. 어서 일어나 병원으로 갑시다.》

문밖에 나선 차동포는 남편이 병원에로의 길에 앞서 자기를 부축하고 압록강변쪽으로 나가는것이 의아스러웠다.

강건너에 있는 조국의 모습, 고향땅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압록강기슭을 걸으며 차동포는 남편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였다.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 길을 택하는 남편이 더없이 고마왔다.

다음날부터 차동포는 남편이 그어준 길을 따라 병원에 가군하였다.

주체85(1996)년 8월 심양에서는 광복절을 맞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차복신동포는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론하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으나 대표가 아닌것으로 주저하고있었다.

어느날 석문창은 의기소침해서 시무룩해있는 안해를 보며 말하였다.

《당신이 대표가 아니라 해도 조국통일성업에 작은 힘이나마 바치겠다고 아글타글 뛰는 그 마음을 안고가면 모두가 열렬히 환영해줄거요.》

남편의 이런 고무가 있어 큰물로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내려앉아 교통이 마비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범민족대회장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였다.

재중조선공민총련합회 양영동의장은 대회장에 온 차복신동포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조국을 받들어가는 동포들의 이런 지성이 있어 대회는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주체83(1994)년 7월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뜻밖에도 우리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한 차동포는 한달음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인민도 우는 절통한 나날에 차동포도 자꾸 눈앞이 캄캄하여 몇번이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슬픔, 이 비애를 혼자 안고있으면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아 차동포는 단동시에 있는 남편 석문창에게 이런 전화를 하였다.



차 복 신

《여보, 조국은 눈물의 바다, 슬픔의 바다가 되였어요. 이 상실의 아픔을 무엇으로 어떻게 달랠수 있을가요. 너무도 기막히고 너무도 절통해요.》

그날 석문창은 온밤을 뜬눈으로 밝혔다.

조국의 아픔, 인민의 아픔이 이국땅에까지 메아리쳐와 가슴을 허비며 쩌릿하니 저려왔기때문이다.

그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해질무렵, 압록강다리우로는 정성껏 위문품을 마련한 석문창이 상제가 되여 천근같이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흔히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한다.

조국을 위하는 안해의 마음을 알아주고 군소리없이 언제나 수걱수걱 밀어주는 차동포의 남편 석문창.

갸름한 얼굴에 주름이 패이기 시작한 차복신동포는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의 인생에서 남편의 그 마음이면 만족이고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였다.

기쁨, 행복, 인생의 락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은 각이하다.

그러나 꾸밈없이 소박한 녀인이 찾고있는 기쁨과 행복도 귀히 여겨야 할 소중한것이리라.

오늘도 이국의 한 고장에서 그들 내외는 소문없이 작은 쌍기둥이 되여 성실하게 조국을 받들어가고있다.

지명유래

염 주 군

염주군(塩州郡)은 평안북도의 서부해안연선에 위치하고있는 군이다.

군의 북부는 룡천군과 피현군, 동부는 동림군, 남부는 철산군, 서부는 조선서해와 서로 접하여 있다.

염주군은 주체41(1952)년 12월 행정구역개편때 종전의 룡천군 외하면과 외상면, 내중면, 부라면의 12개 리, 철산군 서림면의 15개 리를 통합하여 새로 내온 군이다.

군의 이름은 예로부터 소금생산기지로 널리 알려졌던 소금밭부락인 염서동의 《염》자와 고을을 의미하는 《주》자를 붙여 염주군이라고 하였다.

현재 군의 행정구역은 1개의 읍과 1개의 로동자구, 22개의 리로 구성되여있다.

염주군에는 룡골산성과 서림성을 비롯한 옛성터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군의 백운산(白雲山)서쪽기슭에 있는 서림성은 1010년에 쌓은것이다. 처음에는 흙성이였는데 1747년에 절도사 리일제가 조정의 령을 받고 흙성을 돌성으로 고쳐쌓고 여기에 청강진을 옮겨 배치하였다.

지금은 성터만 남아있는데 서북변방어의 요새지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이고장 사람들이 서림성을 쌓기 위해 성을 쌓을만한 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큰 범 한마리가 불쑥 나타났다. 범은 사람들을 놀래우지도 해치지도 않고 뒤를 계속 돌아보며 걷기만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하도 이상하고 괴이한 일이여서 범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 범은 한방향으로만 계속 걷더니 북쪽으로 사라지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대낮에 난데없이 범이 나타난것으로 보아 필경 범이 성자리가 될만한곳을 알려주려는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의 발자취를 따라 성을 쌓았다고 한다.

이렇게 축성된 성이 서림성이라고 한다.

염주군에는 이밖에도 룡골산성중수비, 정봉수승전비, 36의사비, 리공충렬비 등 많은 고적들과 남압리의 막대바위와 같은 천연기념물들도 있다.

고려약생산기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고려약재들을 가지고 장생불로약들을 많이 만들어 리용하여왔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락원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장수고려약수출품공장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고려약생산기지들중의 하나이다.

공장은 사회주의대진군의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였다.

오늘은 7,000여평방메터의 부지면적에 2층, 3층짜리 건물들이 구색에 맞게 일떠섰으며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고려약생산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좋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장수고려약수출품공장에서는 인삼, 꿀, 당귀, 만삼, 천궁, 창출, 세신, 계피, 구기자, 숙지황 등의 약재들을 가지고 40여가지의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하고있다.

조선의 유명한 개성고려인삼을 가공하여 만든 개성고려홍삼, 개성고려인삼정액, 개성고려꿀삼, 고려인삼인단, 장수보약으로 인기있는 경옥고, 륙미고, 구기자고, 창출고, 십전대보환, 양게론 그리고 심장혈관계통에 특효가 있는 안궁우황환, 우황청심환, 구심환 등의 고려약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인삼을 넣어 만든 가공품들과 여러가지 차제품들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높다. 이 제품들은 중국과 로씨야, 독일, 뽈스까 등 여러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수출되고있다.

지난 기간 34개 나라의 90여개 대표단이 이 공장을 참관하였으며 기술교류를 광범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찾아내여 병치료와 장생불로의 명약으로 써온 조선사람들이 그 전통을 살려 각종 보약들과 치료약들을 훌륭히 만들어내는데 대하여 감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앞으로 조선고려약기술쎈터와의 기술적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여러가지 효능높은 장생불로약들을 새롭게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장수고려약수출품공장은 지난 25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한것으로 하여 여러차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감사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평양의 자랑— 모란봉의 정각들

평 화 정

수도의 풍치아름다운 모란봉에는 골안기슭을 따라 곳곳에 아름다운 정각들이 건설되여 공원의 정서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평화정은 모란폭포 우측의 경사지에 자리잡고있다.

주체48(1959)년 5월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청년공원 준공식에 몸소 나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자를 잘 지었다고, 고전을 잘 살렸다고 하시며 정각의 이름을 《평화정》이라고 지어주시였다.

30여평방메터의 면적을 가진 정각은 모지붕형식의 아담한 건물이다.

묘한 절벽을 중심으로 삿갓처럼 내리드리운 지붕은 끝에서 건듯 들려 경쾌한 감을 안겨준다.

정각은 고전미가 잘 살아있는 건축물이다.

화반과 두공 부분을 비롯한 천정안은 섬세하게 그려넣은 단청그림과 무늬의 밝은 색채로 하여 매우 화려하다. 특히 두공부분에 새겨넣은 학, 사슴, 소나무, 산삼 그리고 꽃과 오색무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기묘함이 더욱 살아난다.

절벽우에 뿌리박고 솟아있는 정각에 있노라면 구슬같이 부서져내리며 떨어지는 모란폭포소리가 정답게 들려온다. 그리고 정각우로는 여러가지 모양의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싱싱하게 자라고있다.

폭포주위는 기암들과 온갖 식물들이 풍치에 어울려 정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정각의 란간에서 앞을 내다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숭엄하게 우러러 안겨온다.

평화정은 참으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



조선의 민속

은 장 도

예로부터 문명한 생활을 하여온 우리 인민들속에는 전통적인 민족옷차림을 할 때 허리에 치레거리의 하나로 장도를 차는 풍습이 있었다. 장도는 곱게 장식한 작은 칼을 말한다.

삼국시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남자들이 작은 칼과 숫돌을 차고다니였는데 왼쪽에는 숫돌을 차고 오른쪽에는 《오자도》를 찼다. 또한 고구려의 유적들과 당시의 무덤들에서도 작은 칼과 작은 숫돌이 여러개 나왔으며 허리장식유물에 여러가지 생김새의 장식물과 함께 금장도나 은장도가 달려있는것이 나타났다.

이 풍습은 리조시기에 와서는 장식적의의가 더 강조되고 장도의 집과 자루를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어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그리하여 장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는데 칼자루와 칼집의 재료에 의해서만도 은장도, 서장도, 참대장도, 흑각장도, 산호장도, 호박장도, 비취장도, 옥장도, 밀화장도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민은 은장도를 으뜸으로 여겼다. 그것은 장도를 귀금속으로 만든데다가 세공장식을 특별히 섬세하게 처리하여 공예적가치가 높았기때문이다. 은장도에서 큰것은 15센치메터(그중 칼몸 10센치메터미만)정도이고 작은것은 10센치메터(그중 칼몸 4~5센치메터)미만으로서 큰것은 남자들이, 작은것은 녀자들이 찼다.

칼날의 한면에는 남녀간의 사랑과 의리를 표시하여 《일편단심》이라는 글자를 새긴것이 적지 않았으며 십장생무늬와 그밖의 무늬들을 칼자루와 칼집에 새기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혼인을 축하하거나 어른이 된것을 계기로 기념으로 장도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

장도는 처음에는 남자들이 치레거리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녀자들도 보신용 겸 치레거리로 찼다. 보신용으로 주머니속에 넣어 차는것을 낭도, 치레거리로 허리에 차는것을 패도라 하였다.

오늘 은장도는 정의감이 강하고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반영하는 상징물로서 우리 시대에 만복을 안고 태여나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의 장래를 축복하는 의의있는 기념품으로 남자아이들에게 수여하고있다.

단 상

옛 나루터에서

여기는 남녘땅의 강화도, 교동도가 손닿을듯이 바라보이는 황해남도 배천군 향정리의 옛 나루터이다.

이른아침이면 의례히 이 나루터에서 주인들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들이 울리군했다.

《조기 사시오! 물좋은 조기 사시오!》

《해삼도 있고 생복도 있어요.》

강화도쪽에서 펄펄 뛰는 갖가지 고급어족을 싣고온 나루배들에서 울리는 목소리, 방울소리…

그럴 때면 이곳 주민들은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하며 나루배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낙네들은 조기며 해산물들을 소랭이에 담아다 물좋은 생선국도 끓였고 물고기회며 기름튀기로 푸짐한 조반상을 마련하군했었다.

나루배들은 수산물을 싣고온대신 이고장의 기름진 옥백미와 향기로운 과일들을 가득 싣고 귀로에 올라 강화도쪽으로 떠나갔다.

《또 오세요.》

《오구말구요. 래일 다시 만나자구요!》

손저어 바래워주고 손저어 응답하는 따뜻한 인사말들…



그 정다운 목소리들에 실려 겨레의 따뜻한 정이 이 나루가에서 몇백년 세월을 두고 흘렀을것인가.

아무때나 서로 만나 가식없이 나누는, 한피줄을 이어받은 동포의 정은 참으로 살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득한 과거속에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매일같이 펼쳐지던 그 흐뭇한 식전의 아침풍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수 없고 다정한 인사말들도 들어볼래야 들어볼수가 없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두동강나면서부터 이 나루터와 강화도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나루배들도 더는 이곳으로 올수가 없게 되였다.

50여년세월, 인간의 한생과 거의 맞먹는 반세기의 력사!

겹쌓이는 엄혹한 세월의 풍진속에서 그 흥성거리던 나루터는 희미한 흔적만 남고 늘 보던 얼굴들도 삭막해졌으니…

소리치면 들릴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건만 나루배들의 배길은 천리보다 더 먼 로정으로 되고말았다.

예나 지금이나 이곳 향정리와 강화도, 교동도사이의 바다에는 잉어, 숭어, 조기를 비롯한 갖가지 물고기들이 욱실거린다.

잉어, 숭어 철에는 너무도 물고기가 많아 이곳 사람들은 《물절반, 고기절반》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바다 한복판을 가로질러간 군사분계선때문에, 그 분계선상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철망이 세워진탓에 이쪽에서도 바다로 나갈수가 없고 저쪽에서도 바다에 나올수가 없다.

다만 날새들과 물고기떼들만 자유롭게 오갈뿐이다.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렬은 이렇듯 이 지대 주민들의 기름진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목가적인 아침풍경을 파괴해버렸으며 단란한 겨레의 정, 혈육의 정마저 가혹하게 끊어버렸다.

이곳의 년장자들은 50여년전 이 나루터에 펼쳐지던 아침풍경을 자주 회고해보면서 못내 가슴아파한다.

언제면, 과연 언제면 그날의 아침풍경을 되살려낼수 있을것인가.

통일은 이 지대 주민들의 생활과 결부된 소원일뿐아니라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민족사적인 숙원이기도 하다.

통일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우리 겨레이고 통일이 없이는 존재할수도 없는것이 내 나라땅이다.

내외의 분렬주의자들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영영 갈라놓으려고 발악을 해도 우리 겨레의 단합된 거족적인 힘과 결단에 의해 미구에 저 원한의 분단선은 깨여지고말것이다.

그때에는 이곳에 옛 배길이 다시 열리고 강화도, 교동도 쪽에서 생선을 실은 나루배들이 밀려올것이며 이고장의 기름진 옥백미와 향기로운 과일들이 배전마다 듬뿍 실려 다시 흘러갈것이다.

흔적만 남아있는 옛 나루터에서서 지척의 남녘땅을 바라보느라니 통일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가장 가까운 생활이고 가장 아름다운 강토의 풍경이라는 생각이 더욱 절절하게 뇌리를 파고든다.

—향정리의 옛 나루터에서—

사 랑 의 제 복



아름답고 웅장화려하게 펼쳐진 수도의 거리에 나서게 되면 산뜻한 제복차림으로 네거리의 질서를 유지하는 녀성교통안전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절도있는 몸동작, 경쾌한 호각소리에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행렬이 흐른다. 어찌 보면 무용수의 률동과도 같은 신호동작도 매력이 있지만 그들의 이채로운 옷차림은 모두의 시선을 끈다.

채양이 달린 양털모자에 금빛단추로 장식된 포근한 털외투, 두툼한 솜바지, 장화…

《겨울한철 아무리 춥다해도 우리 교통안전원들은 자그마한 추위도 느끼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그대로 열이 되고 해빛이 되여 우리들의 몸을 덥혀주고있습니다.》

녀성교통안전원들이 한결같은 진정을 담아 하는 이야기이다.

주체85(1996)년 12월말 이해도 다 가는 추운 겨울날 인민군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네거리에서 교통근무를 서는 처녀안전원들의 모습을 띠여보시였다.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녀성교통안전원들이 춥지 않도록 도안을 잘 만들어서 보기 좋고 뜨뜻하게 겨울제복을 잘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며칠후에는 제일 좋은 모양을 골라주시고 그 생산정형까지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86(1997)년 새해초부터 새 제복을 떨쳐입은 처녀교통안전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였던것이다.

교통안전원들은 나라의 얼굴이며 수도의 거울과 같다고 하시며 철따라 새 군복을 해입혀주시고 보호안경에 빛반사조끼까지 보내주시는 장군님의 세심하고 뜨거운 사랑에 거리의 면모는 더욱더 달라지고 인민의 복무자로서 교통안전원들의 초소근무에 대한 책임감과 긍지는 더욱 높아가고있다.



근무교대를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규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준다.



제복을 입을 때면 장군님의 사랑에 목메이군한다.

사진 정 준



사진 박지서

고국방문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재로동포들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사진 박 철

재중학생견학단의 즐거운 휴식의 한때





오랜 력사를 가진 조선의 비단

비단은 오래전부터 인간생활에서 귀중한 천으로 전해져왔다.

땀을 잘 빨아들이며 따뜻할뿐아니라 부드러워 감촉이 좋은 비단은 예로부터 희귀한 보물로 일러왔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비단을 생산하여왔고 조선은 비단생산국으로 만방에 이름을 떨쳐왔다. 오늘날 비단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생산되고있지만 원고장을 따지면 비단발생지는 우리 나라이다.

비단은 흔히 견직물이라고 부른다. 견직물은 누에고치실을 가지고 짠 천을 말한다. 따라서 비단의 질과 특성은 어떠한 누에고치실로 짜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다시말하여 누에고치실의 질과 특성에 따라 비단의 질과 특성이 규정지어지게 된다.

비단의 기본원료인 누에고치실은 누에가 뽑어내는 단백질명주실이다. 누에에 따라 고치실의 굵기와 무게, 형태, 질김정도가 좌우된다. 따라서 비단생산이자 명주실생산이며 명주실생산은 곧 누에고치생산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조상들이 메누에를 순화시켜 집누에로 키우기 시작한 력사는 아주 오래며 그것은 단군조선이전에까지 거슬러오른다. 평양시 남경유적을 비롯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때의 집자리들에서 발굴된 질그릇밑창들에는 누에가 즐겨먹는 뽕나무잎을 그려놓은것이 많으며 신석기시대유적들에서는 누에를 질그릇에 그리거나 조각한 조각품들이 발굴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 누에치기의 력사가 아주 오래며 그것은 신석기시대때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최근 우리 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누에치기와 비단짜기 력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누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기본은 석잠자는 누에(삼면잠)와 넉잠자는 누에(사면잠)이다. 두번, 다섯번 자는 누에도 있다. 그러나 비단실로 쓰는 누에고치실은 대체로 석잠 또는 넉잠 자는 누에가 뽑어낸 누에고치실이 가장 적합하다.

비단도 석잠, 넉잠 누에가 뽑어낸 고치실로 짠것인가에 따라 각각 질적측면 등에서 많이 차이난다.

예로부터 조선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석잠누에를 키워왔으며 석잠누에가 뽑어낸 누에고치실을 익혀서 비단을 짰다. 우리 나라 누에가 석잠누에였다는것은 홍만선(1643-1715)이 쓴 《산림경제》와 그것을 보충한 《증보산림경제》, 서명응(1717-1787)이 쓴 《고사신서》 등에도 밝혀져있다.

이 책들은 조선의 토종누에가 세번 잠자기를 한다고 밝히고있으며 습기와 연기를 싫어하는 조선누에의 특성에 대하여 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석잠누에는 자라는 기간이 짧고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생활력이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키우기 쉽고 실이 잘 풀리고 질긴 우점을 가진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리 나라 석잠누에실로는 부드럽고 가벼운 비단천을 짤수 있으며 물감들이기 쉽고 물들이면 아주 고운것이 장점의 하나이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면서 우리 나라의 생활력이 강한 석잠자는 토종누에를 일본으로 략탈해갔다.

우리 나라의 독특한 비단이 석잠누에의 고치실을 익혀 짠 비단필이라는것은 문헌의 기록뿐아니라 실지로 선조들이 남겨놓은 비단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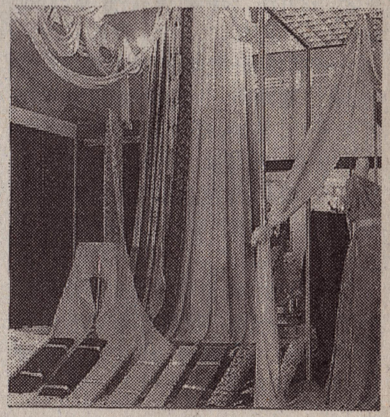
평양시 락랑구역일대에서 기원을 전후한 시기의 고분들에서 나온 고대비단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을 전자현미경 등의 최신수단으로 감정한 결과 실이 아주 가는 석잠누에의 집누에고치실로 짠 비단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고대시기의 조선비단으로는 평직인 이합사(겹실)로 짠 여러가지 비단들이 있으며 고구려시기에는 무늬넣은 릉직, 금실 등을 섞어 짠 각종 고급비단들이 생산되였다. 그리고 아름답고 고운 색실, 금실들로 수놓은 비단들도 있었다.

조선의 비단은 옛날에 서역이라고 부르는 중앙아세아와 중동에로 수출되였다.

이렇게 조선비단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독자적이며 특색있는 비단이였다.

비단천



토 막 소 식

구석기시대 몰이사냥터유적 발굴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과학자들은 상원군 로동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만년전 구석기시대 중기의 몰이사냥터유적을 발굴하였다.

이 유적은 상원군 고령산줄기의 계곡어구에 형성된 15개 수직동굴중 그 복판에 있는 한 동굴에서 발굴된것이다.

수직동굴의 퇴적층은 4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3층(붉은점토층)에서는 토끼, 족제비, 오소리, 동굴히에나, 표범, 승냥이, 큰쌍코뿔이(서우), 말, 복작노루, 노루, 누렁이, 꽃사슴, 물소 등 13종에 2,000여점의 짐승뼈화석이 드러났다.

특히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것은 짐승들이 한번 빠지면 헤여나올수 없게 생겼고 수직동굴들이 한줄로 길게 배렬되여 함정체계를 이루고있는 유리한 장소에서 꽃사슴을 기본으로 하는 사슴과 짐승들을 주되는 사냥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물적자료들은 구석기시대 중기 사람들이 사냥하기 좋고 수확물이 많은 짐승들을 골라잡는 방향으로 사냥을 전문화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로동리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 중기의 사냥터유적은 아세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것으로서 이러한 유적이 드러났다는것은 평양일대가 인류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민족면역의 날》 제정운영

공화국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발표 기념일인 지난해 10월 20일을 《민족면역의 날》로 정하였다.

《민족면역의 날》 운영사업은 60년대말부터 시작되였는데 이날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 운영사업이 우월하다는것이 평가되였으며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 나라들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에서는 《민족면역의 날》을 맞으면서 그 성과적보장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이번에 《민족면역의 날》과 관련한 전문일군강습이 진행되였으며 전국의 모든 도시와 농촌들에서 동시에 경구어린이척수마비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였다.

제11차 아세아유술선수권대회

우리 나라 선수들이 지난해 11월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진행된 제11차 아세아유술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쟁취하였다.

주체85(1996)년 7월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제26차 올림픽경기에서 단연 제1위를 하여 금메달을 쟁취한 인민체육인 계순희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2키로그람급경기에 출전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계순희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 금메달수상자로 지목된 일본과 중국, 방글라데슈 선수들을 이기고 올라온 남조선 선수를 경기시작 1분 29초만에 대담한 공격으로 보기 좋게 둘러메쳤다.

그리하여 계순희선수는 남조선 선수를 단숨에 한판으로 타승하고 영예의 제1위를 하여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또다시 주체조선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떨치였다.

녀자유술 56키로그람급경기에 출전한 리명화선수도 앞서 진행된 경기들에서 남조선선수를 반판 하나, 유효 하나로, 중국 대북선수를 한판으로 타승하고 중국선수와 결승경기를 진행하였다. 결승경기에서 리명화선수는 중국선수를 1분 30초만에 한판으로 눌러버리고 영예의 제1위를 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한편 김명희선수는 녀자유술 66키로그람급, 곽억철선수는 남자유술 78키로그람급, 배성남선수는 남자유술 71키로그람급, 강명찬선수는 남자유술 60키로그람급 경기에서 각각 제3위를 하여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아세아의 19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89명의 우수한 남, 녀 유술강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지난해 11월 캄보쟈협조 및 평화연구소에서 진행되였다.

기증식에서는 우리 나라 대사의 발언에 이어 연구소 집행위원장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조선측에서 캄보쟈협조 및 평화연구소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의 귀중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들을 기증해준데 대해 캄보쟈사람들은 더없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고향소식

웃음절로 노래절로

우리는 지난해 마가을 나라의 서북단 압록강하구에 자리잡고있는 비단섬을 찾았다.

압록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던 려객선이 섬의 포구에 닿은것은 한낮이 기운 무렵이였다.

우리는 중키에 몸이 다부진 갈종합농장 기사장의 안내를 받아 이고장에서 제일 높은 신도의 삼각봉에 올랐다.

바다바람에 설레이는 《갈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흐뭇한 마음을 안고 《갈바다》를 바라보느라니 배를 타고오면서 최정손로인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되였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홍안령에 동생을 두고있는 최로인은 멀리 바라보이는 섬을 가리키며 지난날 이곳에는 신도를 중심으로 10여개의 섬이 널려있었는데 그것들은 서해의 밀물에 잠기고 썰물에 씻기며 세월과 더불어 덧없이 흘러왔다.

쓸모도 없고 살곳도 못되여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 아득한 태고부터 무명평이라 하였다.

그러던 이곳이 오늘은 끝없이 설레이는 《갈바다》를 펼치고 화학섬유원료기지의 하나로 전변되였다.

숙연한 마음으로 《갈바다》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 기사장은 조용히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여름에 세찬 풍랑을 헤치시고 신도에 찾아오시여 신도와 마안도에 이르는 여러개의 섬을 하나의 뚝으로 둘러막고 거기서 얻어진 수천정보의 간석지에 갈밭을 조성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이 섬을 《비단섬》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홍안령에서 살고있는 최정수동포의 고향땅은 이렇게 조국의 지도우에 그 이름도 새롭게 새겨지게 되였다.

바둑판처럼 규모있게 정리된 갈밭에 압록강물이 판개물길로 뻗어갔고 뚝길을 따라 영농물자를 실은 자동차며 뜨락또르가 꼬리를 물고 달려온다.

그런가 하면 갈을 싣고 하늘을 날으는 삭도바가지가 연방 가로세로 선을 긋는가 하면 갈을 걷어들이는 총각처녀들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가 울려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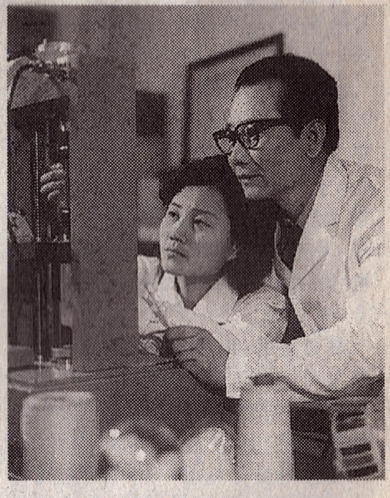
행복의 창조로 약동하는 비단섬,

우리는 농산분장에서 최정손로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오늘의 〈비단섬〉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수다. 물의 방조가 없으면 살수 없었던 이고장이 오늘은 오히려 물에 방조를 주며 살지요.》

최로인은 섬의 정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흐뭇해오는지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쌀은 물론 남새까지도 륙지에서 가져다 먹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고장이 오늘은 섬에서 생산하는 알곡과 고기, 남새로 섬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게 되였다.



갈에 의한 새로운 섬유생산방법을 연구한다.

지난날 조개살 한짐을 지고 나가야 베잠뱅이를 하나 얻어입었다던 이 섬마을에 오늘은 직물공장이 일떠서 돌아가고 아담한 식료공장들이 꾸려져 맛있는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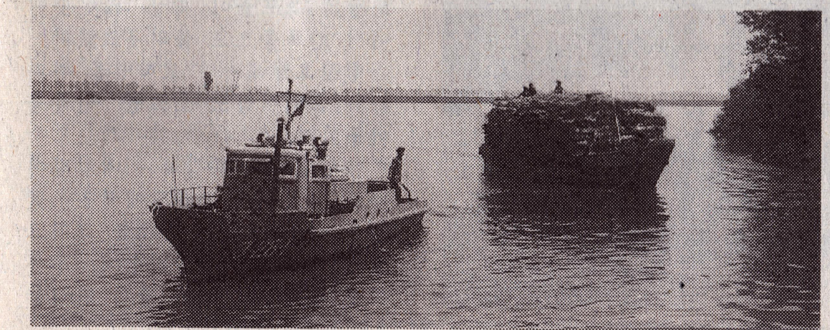
우리는 최로인과 함께 농장원들의 살림집도 돌아보았다.

섬마을의 어느 가정에 가보아도 현대적인 생활필수품들과 살림가구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오늘 이고장 사람들은 자기네 섬마을을 가리켜 웃음절로 노래절로 나오는 살기 좋은곳이라고 자랑한다.

조국의 지도우에 전설처럼 솟아오른 《비단섬》의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좋아질것인가.

갈운반



묘향산관광

산봉우리와 골짜기마다 그 모습이 기묘하고 철따라 피는 꽃들의 향기가 또한 그윽하여 예로부터 그 이름도 묘향산.

수도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곳에 있는 이 산은 우리 나라 5대명산의 하나이다.

웅장한 기암들과 깊숙한 골짜기들, 깎아지른듯한 벼랑들과 그 밑을 감돌아 흐르는 구슬같이 맑은 물, 무수한 폭포에 그윽한 꽃향기, 가을이면 붉게 타는 단풍에 갖가지 새소리, 이 모든것이 한데 어울려 묘향산은 천하절경을 이룬다.

손님들은 자동차와 기차로 묘향산에 갈수 있다. 몇해전에 새로 건설한 관광도로로 갈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있다.

묘향산어구에는 민족적형식의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향산읍이 있다. 향산읍가까이에 있는 향산갑문을 지나 8키로메터정도 들어가면 독특한 건축형식의 향산호텔이 보인다. 묘향산의 탐승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향산호텔에서 1.5키로메터 올라가면 국제친선전람관과 보현사가 있다.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혁명조직들, 진보적정객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보내온 선물들의 일부가 전시되여있다. 주체67(1978)년 8월에 개관된 이 전람관은 합각지붕에 청기와를 올리고 기둥과 서까래들에는 여러가지 꽃무늬단청을 입힌 전통적인 조선식건물이다. 나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었으나 밖에서 보면 목조건물처럼, 창문은 하나도 없지만 창문이 달린것처럼 보인다. 추녀의 모서리마다에서는 나비모양의 풍경들이 바람에 흔들려 방울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은 각지 근로자들



보현사는 1042년에 세운다음 여러번 고쳐지었다.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보현사라고 부르게 되였다. 본전인 대웅전에는 조계문과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 들어갈수 있다. 만세루와 대웅전사이에는 8.58메터 높이의 8각13층 돌탑을 비롯한 여러채의 절간건축물들이 있다. 여기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애국명장 서산대사의 발자취가 어려있다.

묘향산에서 가장 아름다운곳은 상원동과 만폭동이다.

상원동은 상원암이 있는 골짜기로서 여기에는 금강폭포, 대하폭포를 비롯하여 흰눈이 흩날리는듯하다는 산주폭포, 푸른 룡이 날아오르는듯하다는 룡연폭포와 웅장한 천신폭포 등이 있다.

룡연폭포와 산주폭포가 드리운 암반우에는 상원암이라는 작은 절간이 자리잡고있으며 그 뜰안에는 보리수나무와 흥미있는 전설이 깃들어있는 두개의 떡돌도 있다.

상원암에서 동쪽으로 2키로메터가량 떨어진곳에 리조 500년의 정부일기책인 《리조실록》을 보관하였던 불영대가 있으며 오늘도 묘향산력사박물관에는 《팔만대장경》의 판본들이 보존되여있다.

상원동을 돌아본 다음에는 만폭동을 찾아간다. 여러가지 천태만상의 폭포들이 제일 많은곳이여서 만폭동으로 불리우고있다.

향산호텔에서 묘향천을 따라 4.5키로메터정도 오르면 만폭동어구이다.

등산길은 오름길과 내림길이 따로 나있는데 오름길에서는 팔담을 비롯한 푸른 담소들 그리고 만폭대, 장수바위, 비선대, 우록대를 비롯한 전망이 좋은 기암들을 보게 된다. 내림길은 9층폭포에서 단군성동과 화강암을 거쳐 내려온다.

묘향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1,909메터)이다.

여기에서는 하비로암, 이선남폭포, 백운대, 원망봉 등을 거쳐 비로봉에 오른다.

묘향산관광을 마치고 《지하의 명승》으로 이름난 룡문대굴을 돌아보는것도 좋다.

평안북도 구장군읍에서 12키로메터 더 가면 지금으로부터 4억 8,000년전에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있다. 6키로메터의 이 동굴은 크게 두개의 원굴과 30여개의 가지굴로 되여있다.

6만평방메터넓이의 이 굴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석굴이다. 동굴안에는 20여개소의 볼만한 곳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꽃모양의 천정이 있는 백화동, 천정에서 천만가지 보석들이 빛을 뿌리는듯하는 보석동을 비롯하여 광영동, 룡문광장, 지하폭포 등 현란하기 그지없는 지하궁전을 펼쳐보이고있다.

국가관광총국 국장
황봉혁

수기

활력을 부어준 고마운 품

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거행되는 추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나날도 어느덧 다 지나고하여 떠나려고 하던 찰나에 저는 그만 급성위염으로 신고하게 되였습니다.

제 나이 일흔고개도 넘어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던지라 갑자기 도래한 급병을 만나고보니 이제는 내 인생도 여기서 끝장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병원원장선생님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저의 병을 두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극성인지 참 그때를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나라일에 바쁘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글쎄 저의 병증세를 보고받으시고 수술을 하되 년로한 몸상태를 고려하여 잘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군님을 직접 뵈옵지 못했어도 장군님의 사랑은 이미전부터 받아온 몸입니다.

진정으로 말하건대 눈에 흙이 들어간들 이 사랑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장군님의 사랑은 정말로 이 늙은이의 가슴을 미여지게 하는 해빛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온몸에 해살처럼 비쳐들어 저의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였습니다.

수술경과를 두고 원장선생님이랑 저의 생활을 돌보아주고있는 관계부문 일군들도 모두 기뻐하고있는데 장군님께서 또다시 저의 건강회복에 쓰도록 삼을 보내주신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만 참을수 없는 격정이 북받쳐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습니다.

그날밤 저의 가슴은 장군님께로 달리는 이 마음의 충동을 억제할수 없어 미흡하게나마 삼가 글월을 올리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지난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시던 사랑을 오늘날 장군님께서 이어가실 때 저와 저의 딸은 경애하는 그이께 직접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제 생명에 활력을 부어준 고마운 품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저의 가족을 불러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잘 모시는 길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담보되여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저는 그날에 하신 말씀을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에서 장군님의 이 사랑과 배려에 높은 애국적열성으로써 보답하며 언제나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일군이 되겠다는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주체년호로 기록되고 민족사에 찬란한 태양절이 제정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의 가슴마다에도 조선민족된 자부심이 떳떳이 자리잡을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의 힘을 빌어 남은 여생을 통일운동에 기꺼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정일심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일군임)

강명길과 《제중신편》

우리 나라 고려의학의 발전과정을 보면 력사적 시기마다 이름있는 의학자들과 명의들이 수많이 배출되였고 그들에 의하여 훌륭한 고려의학책들이 편찬됨으로써 고려의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강명길은 18세기 우리 나라의 뛰어난 의학자이며 명의였다.

강명길(1737–1806년)은 승평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는데 의학공부에 전념하여 24살에 의사가 되였고 31살에 의관에 급제하였다. 32살에 태의원에 들어가 의료활동을 하면서부터 그의 뛰여난 의술은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40살부터는 태의로 주역을 담당하고 치료사업을 20여년간 하다가 1806년 69살에 사망하였다.

강명길은 당시까지 전해지고있는 의학책들이 많지만 내용이 번잡하고 불비한 점이 있다는것과 특히 당시 널리 쓰이고있는 치료법과 처방들이 빠져있다는것을 간파하고 병치료하는데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중요 요점만을 추려서 치료편람식의 책을 편찬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집필에 착수한지 10여년만인 1799년에 림상의사들은 물론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보고 리용할수 있는 8권으로 된 《제중신편》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강명길은 자기가 편찬한 책이름을 민중을 구제하는 의서를 새롭게 편찬하였다는 의미에서 《제중신편》이라고 붙였다.

《제중신편》은 《동의보감》을 비롯한 20여종의 국내외 중요의학책들과 자신의 30여년간의 치료경험들을 참고하여 편찬한 고려림상치료편람에 속한 책이다.

《제중신편》에는 고려의학의 기본리론들과 고려의학의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부인과, 소아과 등과 일련의 전염병, 각종 중독시 해독법 및 구급법의 내용들이 체계정연하게 비교적 풍부하게 서술되여있다.

《제중신편》에는 고려림상 각 과에서 흔히 보는 질병을 80여개의 질병문으로 구분하고 매개 질병에서는 맥상과 증후 및 치료의 차례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중점적으로 주었다.

《제중신편》의 특징은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수 있게 서술한것과 병치료에 쓰인 처방에 들어있는 약재가 주로 우리 나라에서 나는 어데서나 쉽게 구할수 있는 약재들을 쓴것이다.

《제중신편》에는 늙은이들의 병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장년들의 병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제7권에 새롭게 《양로》라는 제목을 따로 설정하고 로인들의 병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늙은이들은 기혈이 쇠약하므로 맛이 쓰고 성질이 찬 약이나 게우고 땀내고 설사하는 약은 쓰지 말고 주로 기혈을 보양하는 약을 쓸것을 강조하면서 보약제로서는 성질이 평한 약재들과 곡식류, 남새류, 과실류, 고기류 등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로인보양처방 11가지를 새롭게 첨부해놓았다.

8권에 씌여진 약성가에서는 우리 나라 각지에서 나는 303종의 상용고려약에 대한 약효를 따로 외우기 쉽게 가사형식으로 써놓았는데 저자가 새로 첨부한 83종의 약재도 다 우리 나라에서 나는것들이다. 그리고 매 약재마다 민간에서도 구해쓸수 있게 고유조선어로 이름을 첨부해놓았다.



이렇듯 《제중신편》은 구성체계와 내용이 정연하면서도 간결하여 누구나 다 보고 쉽게 리해할수 있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손쉽게 활용할수 있게 편찬되였기때문에 출판되자 의사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널리 애용하는 책으로 되였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번 출판되였다.

사 화

《가금강문》과 《가단군대》

옛날 서울장안에 있던 한 량반이 녕변의 신임부사로 왔다.

부사는 부임한 첫날부터 정사는 제쳐놓고 관내 명승지를 두루 편답하며 유흥으로 날을 보냈다. 이렇게 되자 고을의 민심이 자연 소란해졌다. 그러나 부사는 그런데는 귀도 돌리지 않았다.

관서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약산동대에서 여러날 묵으며 흥청거리다가 돌아온 부사는 그 흥이 가라앉기도전에 또다시 통인을 불러들여 래일아침 묘향산으로 떠날 차비를 하라고 분부하였다.

보름나마 사인교를 메고다닌 하인들이 통인의 부름을 받고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중엔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호방한 장길이란 교군도 있었다.

《듣거라. 래일아침 묘향산구경을 떠나겠으니 미리 길떠날 차비를 하랍신다.》

《예!》

하인들은 되돌아나오면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또 죽어났군!》

《별수 있나. 이놈의 팔자가 그런걸…》

《팔자는 무슨놈의 팔자라구 그러슈. 누구는 가마타고 구경다니구 장길인 가마메라구 낮판대기에 써붙였습디까!》

좀해서 성낼줄 모르던 장길이 이렇게 나오자 나이든 교군은 입을 딱 벌리며

《어허, 자네 어찌자구 날 보고 성을 내나! 우리같은거야 해볼데 없으니 팔자소관에 붙일밖에 더 있나…》하며 탄식조로 나왔다.

《글쎄 형님보고 성을 내자는건 아니웨다.》

장길이 말은 이렇게 했으나 시퍼래진 얼굴색은 달라지지 않았다.

장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신임부사는 고을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얼굴 반반한 기생이란 기생은 다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관할하에 있는 이름난 유흥지는 다 찾아다녔다.

그통에 녹는것은 하인들이였다. 인교채 벗을 날이 없었고 멍든 어깨가 가라앉을새가 없었다.

신임부사는 명산구경을 다니면서도 인교에서 내릴줄 모르는 위인이였다. 길이 좁건 산이 높건 그는 인교안에 앉으면 그만이였다. 그리하여 약산동대에서 보름나마 있으면서 죽다살아난 그들이였다.

묘향산에 가서도 그럴건 뻔했다. 때문에 묘향산을 간다는 소리가 나오자 장길은 울컥 울분을 터쳤던것이다.

지금 장길의 머리속에는 빈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상원암의 인호대와 만폭동, 하비로골안의 벼랑길과 단군굴이 떠올랐다.

《하긴 그 험한델 가마메고 다닐 생각하니 아뜩하네.》

나이 지긋한 교군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기에 무슨 수를 생각해보자는거웨다.》

이렇게 말하며 한동안 제 생각에 잠겨있던 장길이 벌씬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

《가만, 이렇게 해보는게 어떨수…》

듣고보니 참 묘한 생각이였다.

다음날 아침 드디여 녕변부사의 일행은 묘향산으로 떠났다.

행차는 요란하였다. 악공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풍악을 울리는 가운데 사인교가 흔들흔들 나가고 뒤를 이어 인물고운 기생들과 하인들이 따라섰다.

때는 칠월중순복허리라 교군들의 온몸은 비물처럼 땀이 흐르고 눈앞은 땀방울로 자꾸 가리워진다.

소바리가 넘치게 실은 황소짐에서 음식내가 물씬물씬 풍긴다. 기운이 왕성한 황소도 힘이 진했는지 숨을 헉헉 몰아쉬다가 길게 영각소리를 내지른다.

드디여 행렬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향산천을 에돌아 안심사에 당도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린 일행은 상원동골안으로 접어들었다.

아무리 흥거로운 유람길이지만 부사도 인교안에 앉아있기가 힘든 모양이였다. 경사면을 톺아오르며 인교채가 들리자 짜증섞인 소리가 련속 흘러나왔다.

《여봐라, 아직 멀었느냐?》

불같은 독촉이 성화같다.

(에라 모르겠다.)

장길이는 이때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며 뒤에 선 교군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네명의 교군들이 약속했던대로 걸음을 뚝 멈추었다. 금강폭포가 보이는 상원동골안의 입구였다.

이때 장길이 배심좋게 나서며 말했다.

《부사님, 여기가 바로 상원동골안의 금강문임을 아뢰옵니다.》

가마안에서 땀을 흘리던 부사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내

렸다. 진짜 금강문은 오리길을 더 가야 있다는걸 알리 없는 부사였다.

장길의 말대로 부사의 눈앞에는 허리를 굽히고 맨몸으로 겨우 빠져나갈수 있는 기묘한 바위밑으로 길이 나있었다. 더는 인교를 탈래야 탈수 없는 길목이였다.

《이게 소문에 듣던 금강문이 틀림없겠다!》

《네!》

아닌게아니라 백룡이 꼬리치는듯한 금강폭포가 보이고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풍겨왔다.

《과시 듣던바와 다를바 없도다.》하고 탄복하여 부사는 흡족해서 산경치를 둘러보았다.

기실은 인호대우에서나 상원동절경을 볼수 있건만 부사로서는 그 절경을 본것만큼이나 놀라와하였다. 그러니 금강문이 룡연폭포와 산주폭포우에 있다는것을 알리 없는 그였다.

제멋에 흥이 겨워 수려한 초록빛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개울에 발목을 푹 잠그고난 부사는 너무도 흡족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렇듯 녕변부사는 상원동의 초입경치를 구경하고도 동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여 상원동에 붙이는 시 한수를 지어 흥얼흥얼 읊군했다. 그리고는 어서 빨리 묘향산의 절경을 다 구경하자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교군들의 《친절한 안내》로 만폭동도 이렇게 초입경치만 구경한 녕변부사는 아득한 옛날 단군이 내렸다는 단군굴을 향해 떠났다. 이쯤 되고보니 누구보다 기쁘고 걸음이 빨라진것은 장길이네 교군들이였다. 담이 커진 장길이네는 단군굴이 아찔하게 바라보이는 길목에서 또다시 인교를 멈추었다.

그앞에는 역시 천연이끼가 덮인 바위밑에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고 그옆에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있었다.

장길이는 그 바위가 단군대라고 여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속을만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부사는 마련해온 음식을 몽땅 차리게 하였다. 그리고는 부사가 친히 《단군대》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를 지내고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나서는 《과연 단군이 내릴만한곳이다!》라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차려온 진수성찬과 술을 진탕치듯 먹고 마시고난 녕변부사는 난생처음 묘향산을 구경한 흡족한 마음으로 귀로에 올랐다. 인교안에서는 술에 취한 부사의 흥타령이 쉴새없이 흘러나왔다.

장길이네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걷고있었다. 그렇게 걷는 걸음인지라 인교는 몹시 들썩거렸다.

고을에 온 부사는 묘향산에 다녀온 홍을 가라앉히지 못한채 관속들을 불러들이여 명산구경한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가 지은 엉터리시 한수를 읊었다.

그것을 마당가에서 엿듣던 장길이네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교군들은 마음놓고 폭소를 터뜨렸다.

이렇게 되여 상원동골안입구에 《금강문》이 생겨나고 단군대 못미처인 문수봉에 《단군대》가 생겨났다고 한다.

묘향산구경에 한번 재미를 본 녕변부사는 그후에도 묘향산에 자주 왔는데 진짜 묘향산절경은 한번도 못보고 《금강문》앞에서 《상원암의 절경》을 구경했고 《단군대》앞에서 제를 지내며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오늘도 묘향산탐승의 길에 오르면 우리는 《가금강문》, 《가단군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 생겨난 이름인것이다.



타격받는 남조선경제

남조선에서 미국딸라에 비한 남조선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경제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남조선돈의 가치는 1996년에 8.2%가 평가인하된데 이어 1997년에 들어와서 8월까지의 기간에 또다시 6.1%나 떨어졌다.

남조선돈의 가치의 이러한 폭락은 7년전에 평균시장환률을 도입한 이후 처음 있은 일이다. 이로 하여 추가적부담이 들씌워져 경제의 파국적현상이 한층 심화되고있다. 다시말하여 가령 남조선돈 800원이 미국딸라로 환산하여 1딸라였던것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 900원이 1딸라로 되였다면 차이난 액수 1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데서 타격을 받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 외국빚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 괴뢰들이 비명을 지르고있다.

괴뢰도당은 현재 지고있는 외국빚에 대해 남조선돈으로 환산하여 1996년과 1997년 8월까지의 사이에 1조 4,500억원을 추가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괴뢰도당이 2년전에 순리자로 갚아야 했던 액수와 맞먹는것이다.

괴뢰들은 지난해에 외국빚에 대한 원금과 리자로 120억~130억딸라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데서 온 추가부담까지 안게 되여 빚을 갚을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외국빚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지목되고있다.

남조선경제를 주도한다는 수출에서도 골탕을 먹고있다.

일반적으로 딸라에 비해 다른 나라와 지역의 돈이 평가인하되면 그 나라와 지역의 수출상품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생기는것으로 인식되고있다.

그것은 돈이 평가인하된것만큼 상대적으로 값이 눅어지기때문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만은 그것이 례외로 되고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도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추세가 무역수지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수출을 하려면 원자재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이 예속성으로 하여 돈의 평가인하로 오는 후과가 크게 미치고있는데 정유업계에서만도 올해에 들어와서 5,000억원 규모의 추가부담을 걸머졌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괴뢰도당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남조선이 미국상품의 최대수입지역으로 되고있다.

반면에 남조선상품은 미국의 규제조치에 걸리고 일본상품에 밀려 수출을 실현할수 없게 되고있다.

이로 하여 괴뢰들은 막대한 적자만 내고 비칠거리고있다. 야당인 《국민회의》부총재가 남조선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아세아적으로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있다고 개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밖에도 돈의 평가인하로 물가가 뛰여오르고 통화가 팽창되는 여러 련쇄작용이 일어나 경제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돈의 가치가 전례없이 떨어지고있는것은 경제를 파국적위기속에 몰아넣은 괴뢰도당의 악정의 산물이다.

역적 김영삼집권후 외국빚은 2배이상으로 늘어나고 경상수지적자가 세계 2위라는 놀라운 액수를 기록하고있다.

또한 괴뢰도당의 외화재정은 날로 고갈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심각한 딸라부족현상이 빚어지고있다.

외환시장에서 딸라를 팔겠다는 사람은 없고 사겠다는 사람들만 줄지어서있는 실태는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딸라부족현상은 그의 강세와 남조선돈의 평가인하를 가져오고 그것이 경제파국을 심화시키는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괴뢰통치배들의 마구잡이경제정책을 끝장내지 않는 한 환률에 의한 혼란과 타격을 면할수 없다.

천연기념물

룡악산참중나무

평양의 룡악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룡악산참중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높이는 10메터정도이고 밑둥둘레는 1.1메터, 가슴둘레는 1메터정도이다. 잎은 어기여나오며 그의 길이는 30~50센치메터이다. 닭알모양의 쪽잎이 8~9쌍 붙어있다.

열매는 길둥근모양의 튀는열매이고 그것은 5칸이므로 익으면 5쪼각으로 버그러진다. 씨앗은 10월에 익는다. 7월에 꽃이 핀다. 꽃은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꽃받침은 접시모양이고 꽃잎과 꽃받침쪽은 5개이다. 붉은색이 나는 수꽃술은 5개이며 암꽃술은 1개이다.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반인륜적대범죄

일제가 지난 40여년동안의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대죄의 하나는 조선녀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끌어다가 침략군대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고 그들의 존엄과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것이다.

일제는 야수였다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은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가 국가정책으로 조선녀성들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녀성들을 끌어다가 《황군》으로 하여금 조직적인 강간과 륜간 행위를 합법적으로 감행하도록 명령하고 제도화한것이다.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면서 조선녀성들을 닥치는대로 강제로 련행하였다. 그것은 마치 중세기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였다. 김매던 처녀들, 빨래하던 녀인들, 지어 소학교에 다니는 소녀들까지 강제로 련행해갔다.

당시 《종군위안부》 강제련행에 가담했던 요시다 세이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조선인 〈종군위안부〉를 강제련행했던 그야말로 노예사냥군이였다. 내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련행한 〈위안부〉만도 1,000명이 넘는다. 어떻게 련행했는가.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 녀자들을 모두 길가에 끌어냈다. 도망치면 목검으로 때려눕혔다. 총칼 순사의 감시속에서 울부짖는 녀자들을 발로 차고 때리고 젖먹이어린애도 떼여놓고 2~3살어린애가 울면서 따라오면 그를 들어 내동댕이치면서 강제로 차에 실었다.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군하였다. 분명히 해둘것은 〈위안부〉를 모집한것이 아니라 강제로 체포해갔다는 점이다. 〈위안부〉를 강제련행한곳은 조선뿐이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녀성들이 근 20만명이나 된다. 그중에는 12살안팎의 어린 소녀들도 있었고 30살이 지난 애기어머니들도 있었다.

일제야수들은 《종군위안부》들에게 온갖 학대와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였다.

《위안부》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제야수들을 상대해야 했다. 《위안소》 접수구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시간배정표가 걸려있었다.

식사시간은 30분씩 차례졌는데 먹는것은 대두박 아니면 보리밥에 멀건국이 고작이였다.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의 생활은 감옥살이보다 더하였다. 그들은 철조망을 친 《위안소》안에서 일본군인이 보초를 서는 방안에 갇혀 옆방에도 갈수 없으며 변소와 식당 출입시에는 무장보초가 뒤따랐다.

학살만행

일제는 《위안부》들이 《황군》에게 무조건 순종할것을 강요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불복할 때에는 온갖 폭행을 다하였다. 소리를 치면 입에 자갈을 물리고 반항하면 손을 비끄러매고 때리거나 머리칼을 쥐여뜯고 발로 마구 차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위안부》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학살하였다. 학살하는 방법은 목매달아 죽이고 각을 떠 죽였으며 나무에 꺼꾸로 매달고 유방을 도려내고 팔다리를 잘라죽였다. 또한 임신부들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여 내동댕이쳤으며 음부에 총창까지 박아죽였다. 일제는 《위안부》들을 생매장하거나 강물에 처넣어 죽였으며 수류탄을 던져 집단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포악무도한 일제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은 존엄과 절개를 여지없이 짓밟히였으며 육체적생명과 청춘을 파괴소멸당하였다. 고향을 떠나 타향만리에서 무참히 목숨을 잃은 녀성들, 일제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녀성들, 모진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조선녀성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때문에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녀성들은 얼마되지 않는다.

일제는 타민족말살정책에 기초하여 《위안부》로서 주로 조선녀성들을 충당하였다.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자료들은 《종군위안부》범죄가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일본군부의 지시에 의하여 국가권력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전무후무한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특대범죄행위인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을 반세기동안이나 부인하면서 흑막속에 묻어왔다.

물적증표로서 보상해야 한다

주체79(1990)년이후시기에 들어와 일제의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을 해명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자 일본당국은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도대체 민간업자가 무슨 힘과 권한이 있어 근 20만이나 되는 조선녀성을 강제련행할수 있었으며 범죄행위를 조직화할수 있었겠는가.

일본당국은 일제가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시종 자료가 나오면 마지못해 인정하는식의 태도를 취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범죄사건의 전모와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있다.

그들은 2차례의 정부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이 범죄행위의 동기와 은페된 진목적을 외면하였고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문제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제법적책임과 보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있다. 《종군위안부》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이 국제인권회의들에서 피고석에 몰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가자 일본지배층은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로서 그 무슨 《기금》과 《쎈터》에 대하여 운운하고있다.

일본정부의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였으므로 일본이 선심을 써서 녀성들을 교육시키고 직업훈련을 주며 청년교류, 공동력사연구 등을 진행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종군위안부》범죄사건 피해자들과 그의 공정한 해결을 바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지금 이 범죄사건의 피해자들과 세계인민들은 일본정부가 이 사건에 대하여 전면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며 그에 책임있는자들을 형사처벌하고 반인륜적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물적증표로서 보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하기전에는 이 사건이 해결되였다고 결코 말할수 없다.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그 어느 나라 인민보다도 피해를 많이 당한 우리 인민은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일본정부에 책임을 추궁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지체없이 물적증표로서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것이다.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



독자란

나의 마음도…

안녕하십니까, 기자, 편집원 여러 선생님들!

저에게는 잡지 《금수강산》을 받아보는 날이 제일 즐겁고도 유쾌한 날입니다.

이곳의 동포들도 너도나도 돌려가며 애독하고있습니다.

매양 잡지를 통하여 세기를 주름잡아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은 삼복철에 꿀물을 마신것보다 더 달콤하고 후련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조선민족으로 태여난 행복과 긍지, 영광으로 가슴이 뿌듯하였고 우리 겨레의 지상락원인 조국이 더욱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대전,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주의 원칙에 따라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오늘의 행복한 요람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 길이 전해질것이며 그 위훈과 더불어 빛나는 그 이름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칭송될것입니다.

오늘도 조국인민들은 수령님의 뜻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투지와 용기를 가다듬고 보다 더 밝고 희망찬 미래에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조국인민들을 세상사람들은 한없이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저는 조선의 피를 물려받고 태여난 동포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비록 적은 힘이지만 나의 마음도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더욱 헌신분투할것임을 결의하게 됩니다.

통일의 그날 뜻깊은 상봉을 바라면서.

중국 흑룡강성 태래현
사리오향 서광학교 교장
남광섭

혁명적량심을 바쳐가는 사람들

신천땅의 책임비서

황해남도 중부에 자리잡고있는 신천군은 넓은 벌을 가진 풍요한 농업군이다.

신천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학살된 우리 인민의 붉은피가 스며있다.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을 고발하고있는 신천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이 벅찬 나날에 신천사람들은 신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승상섭동무를 두고 《우리 책임비서》라고 부르게 되였다.

우리는 신천사람들이 나라의 200분의 1을 말고있는 책임일군을 왜 그토록 친절하고 허물없이 찾고 부르며 따르게 되였는지 몇가지 사실을 두고 이야기하련다.

지난해 12월말 신천군 건산리에서는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현대적으로 지은 80동의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새집들에 이사짐을 들여놓는 사람들속에는 세간을 내는 자식들의 살림에 마음을 쓰듯 이곳저곳 살펴가며 잔손질을 해가는 책임비서도 있었다.

훤칠한 키에 너부죽한 얼굴, 수수한 옷차림을 한 책임비서가 쉼없이 일감을 잡아가는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건산리 좌상 박로인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았다.

《책임비서어른, 이게 어쩐지 인간도의나 량심에 어긋나는 일 같아서 선뜻 새집에 들어갈수 없소그려. 책임비서어른도 평범한 보통 집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처럼 고래등같이 덩실한 집에서 살라니 세상에 이럴 법이 없지요.》

《로인님, 인민들이 이런 좋은 집을 쓰고 살라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뜻이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전사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지어놓은 집인데 로인님 같은분이 살지 않고 누가 살겠습니까.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물불을 헤쳐가서라도 끝까지 해결하고 관철하는것, 이것이 승상섭책임비서의 사업기질이다.

지난해 9월 1일 건산리 80동 새집건설의 첫 착공의 삽을 뜰 때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1동1세대살림집은 그 평방수나 내부시설, 창고와 담장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지어보지 못한 고급한 집이여서 상당한 자재와 품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군들은 살림집의 평방수를 줄이던가 건설기간을 넉넉히 잡자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책임비서는 건설자들과 마주앉아 그들이 꾸밈없이 하는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과정에 그는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 군중을 발동시키면 짧은 기간에 얼마든지 살림집을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책임비서는 먼저 본보기살림집을 빨리 건설하도록 내밀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나 흠이 없을만큼 멋들어진 본보기살림집 건설이 끝나자 군에서는 현장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하였다.

이처럼 책임일군의 능란한 작전과 지휘가 있어 건산리 80동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건설할수 있었다.

주체85(1996)년말부터 책임비서 승상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군중을 조직발동하여 군안의 강하천, 도로를 정리하고 산림조성사업을 본때있게 내밀어 군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한달어간에 군에서는 400여리에 달하는 강하천공사에서 420만평방메터의 토량을 정리하고 물길을 곧게 폈으며 54만평방메터의 돌쌓기를 하였다.

3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방대한 공사량을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낸 기적을 놓고 우리는 승상섭책임비서의 일본새를 더듬어보게 된다.

강폭이 100메터나 되고 길이가 45키로메터되는 척서천공사때에 있은 일이다.

그때 책임비서는 공사전반과 부분별단계와 력량을 어떻게 틀어잡고 편성하여 내미는가에 따라 수천공수의 로력이 절약되면서도 공사진전이 배로 올라가는 책임적인 시각을 쉼없이 맞다들게 되였다.

신속한 공사지휘를 하자면 공사형편을 손금보듯 꿰뚫고있어야 했는데 그러자면 안타깝게 요구되고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다.

그 시간을 얻어내는것이 밤이였다.

책임비서는 밤잠을 잊고 래일사업을 설계하고 계획하였다.

그 누구와 어떤 토론으로 어떻게 보내리라는 정확히 타산된 시간, 타산된 장소, 타산된 사람들과 사업할 안이 밤사이에 이루어지군하였다.

그리하여 책임비서의 공사지휘는 요진통을 노리다가 내지른 우승권투선수의 드센 주먹처럼 효과가 컸다.



신천군당 책임비서 승상섭



쌀생산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하는 승상섭

그때 군병원의료진에서는 책임비서의 건강상태를 두고 우려하며 치료받을것을 요구하였다.

환갑에 이른 책임비서는 지금 자기 혈압이 200을 오르내린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책임비서가 육신이 괴롭고 힘에 부쳐도 한걸음 전진하면 나라의 200분의 1의 지역이 그만큼 허리를 펴게 된다.

아마 신천사람들은 이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군중을 이끌고 일을 제끼는 승상섭책임비서를 두고 《우리 책임비서》라고 그토록 가깝고 친절하게 부르며 따르게 되였는지 모른다.

오늘 신천땅은 책임비서의 높은 사업의욕속에 자기의 면모를 나날이 달리하고있다.



승상섭은 농촌문화주택건설도 힘있게 내밀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 늘 관심을 돌린다.





사진 박서

꽃피는 민족예술

국립민족예술단은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예술단들중의 하나이다.

나라의 민족예술발전의 믿음직한 기지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있는 이 예술단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방문공연을 통하여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국립민족예술단은 주체36(1947)년 10월에 창립되였다.

창립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일찌기 민족음악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음악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삼고 나라의 민족예술을 꽃피우며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예술단은 지난 기간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민족가극 《춘향전》을 창작하였다. 또한 민족가극 《심청전》, 《박씨부인전》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민족음악무용소품들을 창조함으로써 나라의 민족예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나날에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다.

현재 예술단은 근 30명의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2.16예술상》 개인경연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부문의 입상자들을 수많이 배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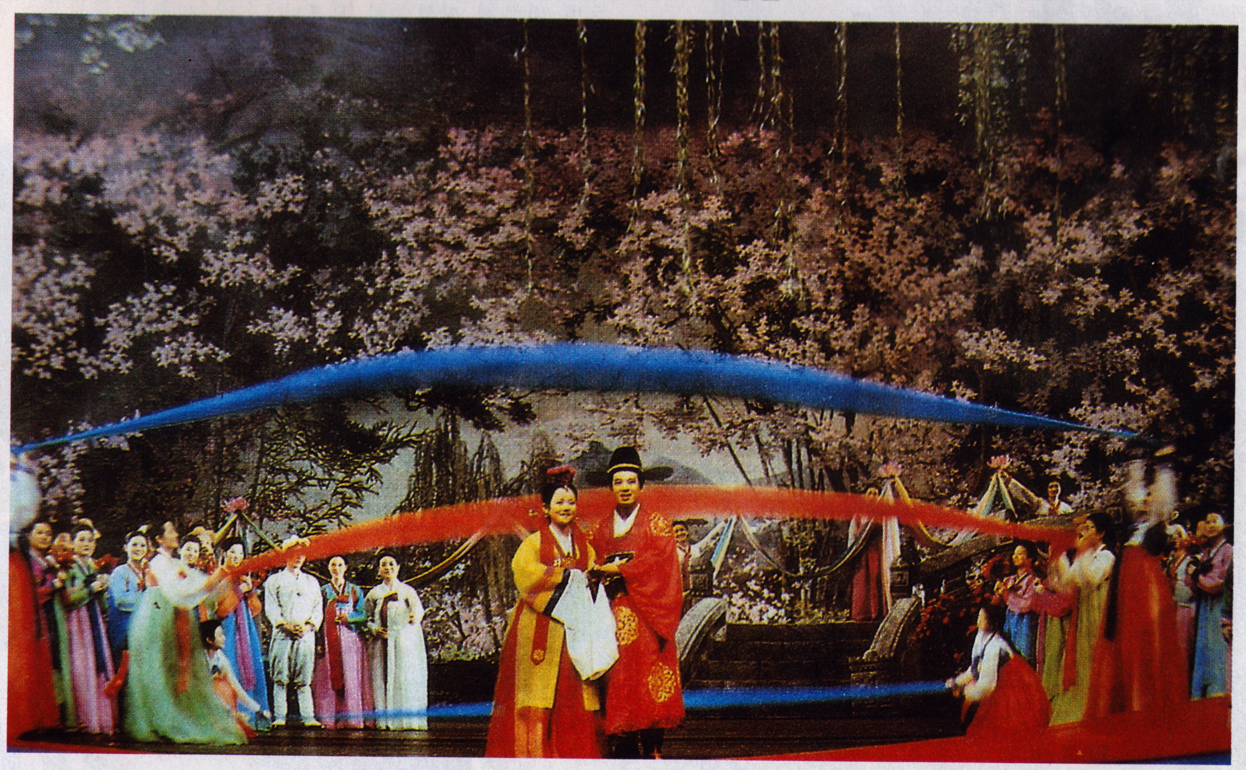
최근에 이 예술단에서는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을 새로 창조하였다. 이 작품은 씩씩하고 우아하며 발랄하고 흥취있는 민족무용들과 특색있는 민족음악으로 자기 조국과 향토를 무한히 사랑하며 그를 지켜 용감히 싸운 평양성사람들의 애국충정과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인 로동생활, 아름다운 생활풍속과 풍만한 정서, 앞날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보여준 독특한 형식의 예술작품이다.

지난 6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창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또한 민족문화전통을 옳게 살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금 국립민족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을 받들고 고전물창작에 비상한 정열을 다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호

민족가극 《춘향전》의 한 장면





민속무용 《산천가》



옥류금독병창 《맑은 아침의 나라》



사진 김영호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인들



기쁨에 넘쳐



평양양말공장



양말봉조작업장

평양양말공장은 평양시 평천구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형태, 색갈과 무늬가 각이한 양말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는 제품생산의 기본단위인 준비직장과 제직직장, 완성직장이 있으며 염색, 제직, 봉조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생산체계가 꾸려져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무늬양말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높다.

공장에서는 무늬고운 양말생산비중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질좋은 무늬양말을 생산하는데서 첫공정은 무늬도안을 잘 만드는것이다.

무늬도안이 나오면 공장의 기술진과 로동자들의 광범한 평가사업이 진행되며 완성된 도안에 기준하여 무늬차림을 하게 된다.

무늬차림에서 기본은 색배합을 잘하여 양말의 색갈조화를 주민들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하는것이다.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질좋고 보기 좋은 양말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있다.



서로 도우며



제직직장의 일부

사진 김광진



통 군 정

통군정은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압록강기슭 삼각산우에 있는 루정이다.

통군정은 의주읍성의 북쪽 장대로서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지금 있는 건물은 1538년에 세우고 1823년에 보수한것이다.

건물은 앞면 4간, 옆면 4간에 합각지붕을 얹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옛건물의 간수는 앞면과 옆면이 홀수로 되여있는것이 보통이고 앞면만 짝수인 경우가 더러 있으나 통군정처럼 앞면과 옆면이 모두 짝수로 된 례는 드물다.

마루는 루정의 앞부분에 T형으로 깔았는데 앞이 높고 뒤가 낮다.

통군정은 7량집이다. 이것은 옆면이 다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넓으므로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리를 많이 얹었음을 말한다.

천정은 로출천정으로 하였고 가운데 동자기둥대신에 련꽃장식을 한 ＋형판자를 세겹 놓음으로써 더욱 보기 좋게 하였다.

이 루정은 그 규모가 큰것으로 보나 사방이 환하게 트인 위치로 보나 장대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건물이며 옛날 우리 나라 군사지휘처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고있다.

통군정은 리조시기 루정건물가운데서 구조와 형식이 장쾌하고 여기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가 좋아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우리 나라 서북방에 자리잡고있는 통군정은 건축술이 우수할뿐아니라 여기에는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용감히 물리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의 력사가 깃들어있다.

